존 루터: 시편 축제 외

세인트 앨번스 성당 합창단,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앤드류 루카스(지휘)

시편을 소재로 한 존 루터의 작품들

개인의 감성과 종교적인 엄숙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시편〉은 대중성과 규범성의 균형이 돋보이는 존 루터의 작품과 비슷한 측면을 갖고 있다. 본 음반에는 존 루터가 〈시편〉을 소재로 작곡한 '시편축제', '시편150', 2011년 로열 웨딩을 위한 작품인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를 비롯해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가 수록되어 있다. 앤드류 루카스는 존 루터의 '마니피카트'와 '테데움'이 수록된 전작에 이어 작품의 반향과 선율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있다. 진중한 접근이 인상적인 음반이다. ***'시편축제'(1~9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3394

NAXOS New Releases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하차투리안: 교향곡 2번 〈종〉, 레르몬토프 모음곡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드미트리 야블론스키(지휘)
굽이치는 강물을 연상시키는 하차투리안 음악의 매력

8.570436

관 시아: 교향곡 2번 〈기대〉 외
뉘른베르크 심포니오케스트라, 샤오 언(邵恩, 지휘)
《대지 진혼곡》으로 유명한 중국의 대표 작곡가 관시아의 작품들

8.570618

퍼셀: 극장음악 2집
아라디아 앙상블, 케빈 말론(지휘) 외
퍼셀 작품 세계의 또 다른 축인 극장 음악을 조명하는 시리즈 두 번째 음반

8.573280

랜들 톰슨: 레퀴엠
필라델피아 싱어즈, 데이비드 헤이즈(지휘)
20세기 미국 합창 음악의 위대한 유산

8.559789

체르니: 그랜드 피아노 협주곡 외
로즈마리 턱(피아노), 잉글리시 체임버 오케스트라, 리처드 보닝(지휘)
너른 스케일 속에 노래하듯 흐르는 화려한 피아노 선율

8.573417

카밀로 토니: 피아노 음악 3집
알도 올리비에르, 파우스트 본젤리(피아노)
20세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토니의 바흐에 대한 헌사

8.573430

마르티누: 가곡 4집
야나 흐로초바 발랑게로바(메조 소프라노), 조르조 쿠클(피아노)
마르티누의 가곡을 재조명한 시리즈 마지막 음반

8.573447

라흐마니노프: 회화적 연습곡 & 악흥의 순간
보리스 길트버그(피아노)
입체적이고 다채로운 인상을 능숙하게 표현하는 길트버그의 터치

8.573469

앤서니 버지스: 관현악 작품
브라운 대학 오케스트라, 폴 필립스(지휘)
음악가로 남고 싶었던 앤서니 버지스의 음악들

8.573472

셉투라: 금관 7중주를 위한 음악 4집
셉투라
금관 칠중주로 편곡된 르네상스 시대 음악

8.573526

21세기 음악예술의 선구자
Aulos media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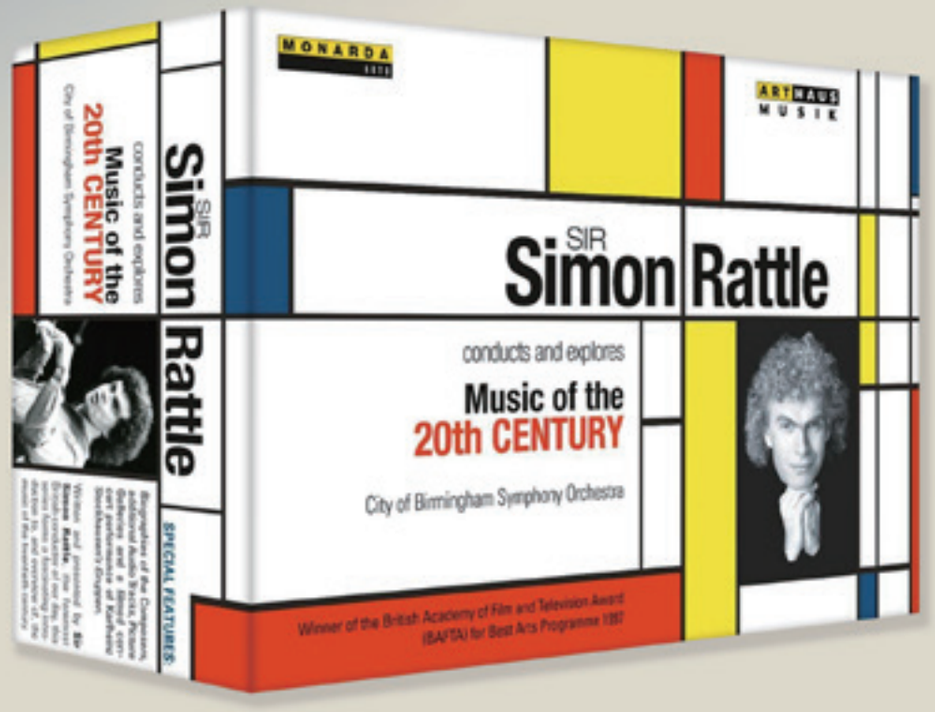
[배포 및 제품 판매처]
전국 교보핫트랙스 매장/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반디앤루니스/ 뮤직랜드/ 풍월당/ 예전레코드/ 올리버/ SJA 뮤직/ 피닉스뮤직프라자(종로)

아울로스 뉴스지 66호
8 809090 673444

www.aulosmedia.co.kr
www.facebook.com/aulosmedia
http://blog.naver.com/aulosmedia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66호 | May 2016



***Key Issue**

사이먼 래틀과 베를린 필하모니커의 베토벤 교향곡 전집

BR Klassik + Faber Castel 스페셜 콜라보레이션 이벤트

***Cover Story**

사이먼 래틀이 안내하는 20세기 음악의 역사

'Music of the 20th Century'

Key Issue

사이먼 래틀과 베를린 필하모니커의 베토벤 교향곡 전집 3
BR Klassik + Faber Castel 스페셜 콜라보레이션 이벤트 ... 55

Cover Story

사이먼 래틀이 안내하는 20세기 음악의 역사
'Music of the 20th Century' 4-5

CD

Accentus 6
BMC 6-11
Campanella 11
Capriccio 12
Celestial 13
Dacapo 13
Daphne 14
Divine Art 14
Doron 15-16
Dynamic 16-17
Farao 18
Gothic 18
Gramola 19
Klanglogo 20
Lipkind 20
Loft 21
MD&G 21
Naxos 22-26
Ondine 27
Opus Arte 27
Orchid 28
Orlando 28
Our Recordings 29
Simax 29
Solo Musica 30
Sono Luminus 30
Steinway & Sons 30
Tactus 31
Tonkuenstler 31

DVD & Blu-ray

Arthaus 32-41
Berliner Philharmoniker 42
C Major 43-46
EuroArts 47-49
OpusArte 50-54

아울로스 디지털 매거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

www.aulosmedia.co.kr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_922_0100

세계 주요 공연장에서 환호를 이끌어낸 래틀과 베를린 필의 베토벤 교향곡 전집

사이먼 래틀의 지휘 하에 베를린 필은 2015년에 필하모니 드 파리, 빈 무지크페라인, 카네기홀, 산토리홀을 순회하며 베토벤 교향곡 전곡(9곡) 연주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음반은 그 해 10월 베를린에서 11일 동안 선보인 베토벤 전곡 연주 실황을 담았다. 다섯 장의 CD 외에 1080/60i의 Full HD 비디오 실황과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High-Resolution Audio)를 담은 블루레이를 통해 접하는 공연 현장은 이 음반이 카라얀과 아바도가 남긴 베토벤 교향곡 전집과 함께 또 다른 음악적 이정표 역할을 할 명반임을 입증한다.

래틀과 베를린 필의 무르익은 호흡으로 빚은 베를린 필하모니 실황

2002년 사이먼 래틀의 베를린 필하모닉 취임 후, 베를린 필과 처음으로 베토벤 교향곡 전곡(9곡)을 담은 전집이 베를린 필의 자체 레이블(Berliner Philharmoniker Recordings)을 통하여 풍성한 패키지로 출시되었다. 카라얀과 아바도가 남긴 베토벤 교향곡 전집과 함께 또 다른 음악적 이정표 역할을 할 명반이다.

Berliner Philharmoniker BPHR160091
[5CDs + 1Blu-ray Audio + 2 Blu-ray]

래틀과 베를린 필은 2015년에 필하모니 드 파리, 빈 무지크페라인, 카네기홀, 산토리홀을 순회하며 베토벤 교향곡 전곡 연주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음반은 그 해 10월 베를린에서 11일 동안 선보인 베토벤 전곡 연주 실황을 담았다. 베를린 필하모니를 가득 채운 래틀과 악단의 에너지는 9곡의 교향곡에 가득하다. 교향곡 9번은 래틀/베를린 필과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하여 호흡을 맞춰온 아네트 다쉬(소프라노), 에바 포겔(메조소프라노), 크리스티안 엘스너(테너), 드미트리 이바첸코(베이스)가 함께 했다.

에디션은 다섯 장의 CD, 1080/60i의 Full HD 비디오 실황을 담은 두 장의 블루레이, CD 이상의 음질을 경험할 수 있는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High-Resolution Audio)를 담은 한 장의 블루레이로 구성되었다. 사이클 연주에서 판본으로 사용한 베렌라이터 출판사의 편집자 조나단 델 마르가 쓴 해설, 초호화 하드커버, 현대적인 디자인을 입은 전집에는 사이먼 래틀의 보너스 필름과 레코딩 제작 장면 다큐멘터리도 수록되어 있다. 베를린 필 자체 레이블이 출시하는 다른 에디션처럼, 교향곡 전곡의 고해상도 음원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코드와 베를린 필 디지털 콘서트홀이 무료 7일 이용권도 포함되어 있다.

[제품 구성]

- 5 CD + 1 Blu-ray Audio + 2 Blu-ray
- Recorded at the Berlin Philharmonie in October 2015
- Concert videos
  HD recordings of the entire symphony cycle

[Bonus]
- Documentary: "Living with Beethoven"
  The nine symphonies with the Berliner Philharmoniker and Sir Simon Rattle
- Introduction: Sir Simon Rattle talks about Beethoven's Symphonies

사이먼 래틀이 안내하는 20세기 음악의 역사
"Music of the 20th Century"

20세기 음악의 천재지변을 예감했던 바그너부터 생존하는 소피아 구아둘리나까지 음악의 20세기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들어보고 싶다는 호기심은 누구나 가져본다. 하지만 '현대음악'은 다가서기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느껴지고는 한다. 이렇게 쉽게 용기 내지 못했던 이들에게 멋진 가이드 한 사람을 소개한다. 바로 지휘자 사이먼 래틀이다.

[해외 본사 자막제작 중 일부 구간 (화산 속의 춤/ Disc 1)에서 한글자막 겹침 현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세기 음악역사의 길라잡이...

본 영상물에서 "그 누구도, 심지어 지휘자조차도 감히 20세기 음악사 전체를 다룰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래틀은 자신의 현대음악 강의와 연주를 "좋은 레스토랑에서 다양한 요리를 조금씩 맛보는 것에 더 가깝다"라며, 이 영상물이 "여러분의 입맛을 돋워 주길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아트하우스에서 출시한 이번 영상물은 독일 모나르다 아츠(Monarda Arts)가 1996년에 제작한 것으로, 1980년부터 1998년까지 수석지휘자 및 음악감독으로 재직했던 래틀과 버밍엄 심포니가 연주를 맡은 영상이 블루레이(3장)와 DVD(5장)로 출시되었다.

20세기 음악사를 대표하는 수록곡들

19세기와 20세기의 풍경을 담은 흑백 다큐멘터리 영상이 래틀과 버밍엄 심포니의 연주자 장면과 교차하는가 하면, 래틀은 음악사에 담긴 사회 · 정치 · 경제적 배경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해설하기도 한다. 래틀의 해설에는 한글,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자막을 갖추었다.

1탄 〈화산 속의 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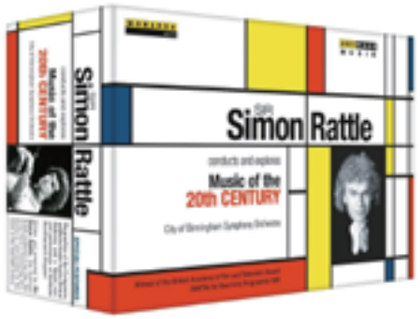
19세기와 20세기에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일어난 음악적 혁명에 관한 것이다. "조성을 버린다는 것"이 갖는 음악적 의미와 의의에 대하여 래틀은 설명하며,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 쇤베르크 '정화된 밤'(*), 말러 교향곡 7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엘렉트라', 베베른의 '다섯 개의 관현악곡' Op.16, 베르크 바이올린 협주곡 '어느 천사를 회상하며'(*)의 일부를 예로 들고 연주를 들려준다.

2탄 〈리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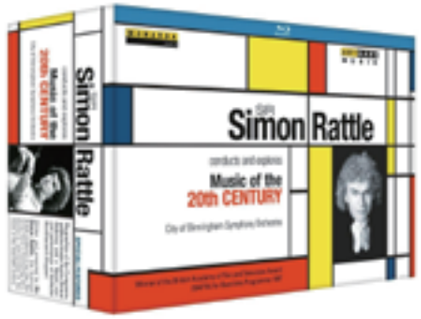
초입에서 래틀은 이 장에 대하여 '집을 떠나'라는 부제를 붙이고 싶다고 한다. 그 이유는 20세기는 교통의 발달로 작곡가는 세계 어디로든 떠날 수 있었고, 다양한 음악을 만나 작곡에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바레즈 '이온화', 리게티 '대기', 스티브 라이히 '나무 조각을 위한 음악', 불레즈 '브루노 마데르나를 추모하는 전례', 메시앙 '투랑갈릴라 교향곡'(*), 콜론 낸캐로우 '자동 피아노 연습곡'의 일부를 연주하는 래틀은 20세기에 일어난 박자관념에 대한 적극적 변화와 새로운 기법에 관하여 설명한다. 특히, 이 장에서는 버밍엄 심포니의 타악 주자들과 함께 타악기를 연주하는 래틀의 모습도 볼 수 있다.

3탄 〈색〉

인상파 화가들이 음악에 영향을 준 것으로 시작하지만, 래틀은 독일과 오스트리와는 다른 질서와 형식에 매달렸던 20세기 작곡가와 음악에 대해 소개하기도 한다. 드뷔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과 '유희'(*), 스트라빈스키 '불새' 모음곡, 쇤베르크의 5개의 관현악곡 Op.16, 불레즈 '피아노를 위한 노타시옹', 메시앙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을 소망한다', 다케미츠 '꿈/창문', 라벨 '다프니스와 클로에'의 일부를 들려준다. 특히, 이 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전통악기인 가믈란의 영향을 받은 메시앙과 그의 생전 인터뷰를 볼 수 있으며, 드뷔시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콘서트 음악보다 영화음악을 더 많이 작곡한 일본의 다케미츠 도루의 음악세계를 통하여 20세기 음악의 넓은 반경을 보여준다.



Arthaus 109237 [5 DVDs]



Arthaus 109222 [3 BDs]

4탄 〈암흑의 시기로 떠나는 세 편의 음악 여행〉

바르톡 '푸른 수염의 성'과 '현과 타악기,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4번(*) · 5번 · 14번, 루토스와프스키 교향곡 3번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과 '베네치안 게임'의 일부를 연주하며, 작곡가에게 영향을 주었던 20세기를 통하여 세 작곡가의 음악을 살펴본다. '푸른 수염의 성'에서는 젊은 모습의 안네 소피 폰 오터(메조 소프라노)도 볼 수 있다.

재즈, 전쟁 속의 음악과 생존 작곡가의 곡까지

5탄 〈미국의 길〉

다양한 문화들이 소통하고 있는 미국음악에 대해 말한다. "유럽의 음악을 약한 불에 천천히 익힌 요리라면, 미국의 음악은 막 튀겨낸 요리"라고 말하는 래틀은 거쉰 '랩소디 인 블루', 아이브스의 교향시 '현충일', 존 케이지 '첫 조립', 코플랜드 '애팔래치아의 봄'(*), 존 아담스 '하모니움', 쿠르트 바일 '외로운 집', 테리 라일리 'In C', 번스타인 '심포닉 댄스' 등과 카터, 펠트먼 음악의 일부를 들려준다. 래틀은 재즈와 팝과 같은 새로운 문화와 만나면서 유럽과 다른 스타일의 음악을 꽃피운 미국의 20세기 음악과 예술가들의 자부심에 대해 논한다.

6탄 〈부활〉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를 살펴본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4개의 마지막 노래', 쇤베르크 '바르샤바의 생존자', 베베른 '5개의 오케스트라 곡', 불레즈 '주인 없는 망치', 슈톡하우젠 '그루펜'(*), 브리튼 '테너, 호른, 현을 위한 세레나데', 스트라빈스키 '아곤' 등을 다룬다.

7탄 〈20세기 음악의 흐름〉

1~6탄을 총정리 하는 느낌이다. 20세기 음악의 전반적인 흐름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며, 베리오 '라보린투스2', 한스 헨체의 교향곡 8번, 죄르지 쿠르탁 '슈테판을 위한 묘석', 해리슨 버트위슬 '비밀극', 마크 앤서니 터지니 '드로운 아웃', 올리버 너센 '불꽃놀이 팡파르' Op.22 등과 소피아 구바이둘리나 '게슈탈트'의 일부를 들려주며, 장장 6편에 이르는 영상물에 담은 20세기 음악에 대한 논의를 매듭짓는다.

1탄부터 6탄까지 각 영상물의 시작을 여는 바그너(1탄), 스트라빈스키(2탄), 드뷔시 (3탄), 바르톡(4탄), 거쉰(5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6탄)는 20세기의 음악사의 중요한 작곡가이자 각 장의 핵을 쥐고 있는 맥거핀이다.

고화질 영상과 다양한 정보를 집약한 부클릿

이 영상물은 20여 년 전에 제작 · 발매한 것이지만, 1080i HD 화질(4:3)이라는 기술력을 탑재하여 재발매되었다. 곡 뒤에 (*) 표시를 한 곡은 오디오 트랙으로 따로 수록된 것들이다(PCM Stereo). 패키지에는 236쪽에 달하는 부클릿과 아트하우스 2015–2016 카탈로그가 수록되었다. 부클릿은 영상에 다룬 각 편의 내용을 요약 · 정리 · 보충하며, 래틀이 다룬 38명의 작곡가들의 약력과 특징을 담은 인명사전이기도 하다. 부클릿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되어 있다.

Accentus

www.accentus.com

ACC30356

멘델스존: 오라토리오 '엘리야'

페테르센(소프라노) 외,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 라데만(지휘)

바흐의 정신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엘리야'

2015년 7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공연 실황. 멘델스존이 1846년에 작곡한 대작 오라토리오 '엘리야'는 구약성서상의 예언자 엘리야가 바알의 사제들과 맞서 승리를 거두지만 민중의 이해를 받지 못해 실의에 빠져 승천하는 내용을 묘사한 것으로, 여기서 작곡가는 자신이 깊이 존경한 바흐 등 바로크 시대 수난곡의 형식에 근대적이고 화려한 관현악법을 결합하고 있다. 지휘자 한스-크리스토프 라데만은 시대악기 연주 특유의 정갈한 음색과 폭넓고 역동적인 다이내믹을 결합해 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독창과 합창 모두 지극히 깔끔하고 명료하다.

BMC

www.bmcrecords.hu

BMC, 즉 '부다페스트 뮤직 센터'는

헝가리의 작곡가들의 명곡들과 헝가리의 음악가들의 뛰어난 연주를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19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리스트 페렌츠를 비롯하여 도흐나니 예뇌, 버르토크 벨러, 코다이 졸탄 등 음악사에 길이 남는 헝가리 출신의 작곡가들의 작품을 헝가리의 정상급 연주자들의 해석으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에리히 베르겔, 코치슈 졸탄, 외트뵈시 페테르, 아담 피셔, 터카치-너지 가보르 등 헝가리 출신의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이 그들만의 개성적인 접근으로 클래식 작곡가들의 명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BMC CD 011 **[2CDs]**

바흐: 푸가의 예술

클루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에리히 베르겔(지휘)

"이 시대적의 중요한 성과"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바로크 음악을 완성한 바흐는 특히 바로크 음악의 핵심인 푸가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었다. 그의 최후의 작품이자 미완성으로 남겨진 〈푸가의 예술〉은 그 재능이 돋보이는 곡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성과이다. 이 곡은 하나의 주제로 모두 열여덟 가지의 푸가를 만들어 보이며 그 최상의 예술을 선보인다. 건반, 특히 오르간으로 연주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음반은 루마니아, 헝가리, 독일 등에서 활동했던 지휘자 에리히 베르겔이 직접 미완성 푸가를 완성하고 전체를 관현악으로 편곡한 곡을 직접 지휘한 매우 희귀하고 흥미로운 녹음이다.

BMC CD 171 **[14CDs]**

Richter in Hungary (1954~1993)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테르(피아노)

40여년 동안 헝가리에서 남긴 리히테르의 업적

1954년 3월 8일 슈만 피아노 협주곡부터 1993년 11월 그리스 서정 모음곡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테르가 가진 연주회를 헝가리 라디오가 녹음한 음원들을 14CD로 묶어 발매한 역사적인 기록물. BMC 레이블로 발매된 이 기념비적인 박스물은 유니버설이나 멜로디야, RCA에서 발매된 리히테르의 전집물들보다 훨씬 더 콜렉터들의 수집욕을 자극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양한 레퍼토리와 완성도 높은 라이브 레코딩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자켓의 아름다운 디자인과 정성스러운 만듬새, 상세한 해설지, 놀라운 복각음질 등을 통해 리히테르의 예술을 온전히 새로 태어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다.

헝가리에서 남긴 리히테르의 연대기적 칼레이도스코프

1954년 3월 8일 슈만 피아노 협주곡부터 1993년 11월 그리스 서정 모음곡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테르가 가진 연주회를 헝가리 라디오가 녹음한 음원들을 14CD로 묶어 발매한 역사적인 기록물. BMC 레이블로 발매된 이 기념비적인 박스물은 메이저 레이블에서 발매된 리히테르의 전집물들보다 더 콜렉터들의 수집욕을 자극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양한 레퍼토리와 완성도 높은 연주들이 수록되어 있음은 물론이려니와 무엇보다도 자켓의 디자인과 정성스러운 만듬새, 상세한 해설지 등을 통해 리히테르의 예술을 온전히 새로 태어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CDR반으로 돌아다니던 리히테르의 헝가리 음원들과는 전혀 다른, 깨끗하면서도 명료한 리마스터링을 통해 그의 거인적이면서도 거장적인 음악을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 유니버설과 워너, RCA의 박스들, 프라하 박스와 멜로디야 박스 등과 더불어 리히테르 박스물의 대표적인 이 헝가리 박스를 갖추어야 진정한 리히테르 애호가로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헝가리 박스가 실로 오랜만에 국내 재수입됨으로 인해 그 절호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50년대 레코딩들은 동시대 멜로디야 레코딩들보다 훨씬 음질이 좋은 편이라 리히테르의 벽력과 같은 터치 및 그 안에서 피어나는 섬세한 뉘앙스가 돋보인다. 특히 1958년 리사이틀이 음질과 음악 모두 훌륭한데, 슈베르트 D.958은 리히테르의 최고 슈베르트 소나타 연주로 손꼽아도 될 정도의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고 슈만의 토카타는 머리카락이 쭈뼛 설 정도로 날카롭고 거인적이다. 1954년과 1973년의 바흐 평균율은 느림부터 격렬함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명연으로서 전곡이 녹음되지 않음이 매우 안타깝다. 한편 1960년대 녹음 가운데에서는 쇼스타코비치의 전주곡과 푸가 및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이 인상적이다. 그의 육체와 정신이 절정에 달해있을 당시의 기록으로서 러시아 피아니스트의 진정한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이 음반을 통해 통감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의 리스트와 베토벤은 테크닉의 한계를 넘어선 리히테르의 정신성이 빛을 발하는 보물과 같은 기록으로서, 특히 베토벤은 그의 라이프치히 실황과 어깨를 견줄 만한 초절명연이다. 1993년 11월 9일 부다페스트 콘그레스 센터에서의 실황인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은 Live Classics의 음원과 더불어 만년에 그가 새롭게 발견한 그만의 서정성을 대표하는 감동적인 연주다. 이 모든 음원 하나하나가 반드시 들어보아야 할 리히테르의 역사적인 유산이다.

CD 1/ 1954년	슈만: 피아노 협주곡(야노슈 페렝치크/ 헝가리 국립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브람스: 인터메초, Op.118/1 & 6, 바흐: 평균율 1권 발췌와 프랑스 모음곡 BWV813
CD 2/ 1954년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소나타 8번, 라벨: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와 밤의 가르파르 가운데 교수대, 감상적이고 우아한 왈츠, 물의 유희, 알보라다 델 그라치오소
CD 3/ 1958년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D.958, 악흥의 순간 D780/1, 리스트: 사랑의 꿈 2, 3번, 잊혀진 왈츠 1–3번, 슈만: 토카타, 드뷔시: 잊혀진 아리에타 1, 5번
CD 4/ 1963년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Op.22, 슈베르트: 클라비어슈튀크 D.946,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 D.760
CD 5/ 1963년	헨델: 모음곡 5번, 쇼스타코비치 6개의 전주곡과 푸가 Op.87, 프로코피에프: 푸가적 환영 Op.22
CD 6/ 1965년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K.280,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Op.101, 쇼팽: 네 개의 스케르초
CD 7/ 1967년	슈만: 노벨레테 Op.21 1, 2번,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Hob.XVI:35, 드뷔시: 전주곡 2권
CD 8/ 1969년	슈베르트: 안젤름 휘텐브렌너 주제에 의한 13개의 변주곡 D.576, 슈만: 환상곡 Op.12, 라흐마니노프: 전주곡 발췌 12곡, 프로코피에프: 전쟁과 평화 가운데 왈츠 Op.96/1
CD 9/ 1973년	바흐: 평균율 2권 발췌
CD 10/ 1972–78년	멘델스존: 무언가 Op.19 1, 2, 3 ,5, 6번, 쇼팽: 녹턴 Op.9/1, 드뷔시: 영상 1권, 하이든을 기리며, 쇼팽: 왈츠 Op.34/3, Op.70/1, 마주르카 Op.63/3, Op.67/3, Op.68/3, Op.Posth,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D.664
CD 11/ 1976년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Op.2/1, Op.10/3, Op.14/1, Op.26
CD 12/ 1982–85년	리스트: 시적이고 종교적인 하모니 9번, 프랑스: 전주곡과 코랄, 푸가, 시마노프스키: 마주르카 Op.50/1,17,18,3, 드뷔시: 전주곡 1권 발췌
CD 13/ 1983년	차이코프스키: 사계 발췌, 피아노 작품 Op.10/1 & 2, Op.7, Op.19/5, Op.40/8, Op.5, 라흐마니노프: 회화적 연습곡 발췌
CD 14/ 1993년	그리그: 서정소곡집 발췌

BMC CD 043

바흐: 트리오 소나타 BWV1038, 최후의 4중 푸가(푸가의 예술) 등

라슬로 허러디(오보에), 졸탄 죈죄시(플루트), 죄르지 러커토슈(바순), 보르발러 도로지(하프시코드), 안탈 살라이(바이올린), 칼만 벌로그(첨발롬), 야노슈 바조니(색소폰), 클루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에리히 베르겔(지휘)

바흐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음반

바흐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음반이다. 바흐의 〈트리오 소나타, BWV1038〉은 오보에와 플루트가 독주악기로 등장하며, 이에 맞춰 통주저음을 하프시코드와 함께 바순이 맡았다. 이어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BWV1004〉에서 두 악장씩 바이올린과 헝가리의 민속악기인 첨발롬으로 연주한다. 그리고 〈파르티타, BWV1013〉 중 두 악장은 색소폰으로 연주하여, 다양한 바흐의 재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바흐의 미완성 작품인 〈푸가의 예술〉 중 마지막 푸가를 에리히 베르겔이 완성하고 관현악으로 편곡한 곡이 대미를 장식한다.

BMC CD 047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d단조, 이자이: 소나타 3번 등

안탈 살라이(바이올린)

옛 거장의 풍부하고 에너지 가득한 음향을 가진 헝가리안 바이올린 사운드

안탈 살라이는 맨하탄 음대에서 핀커스 주커만을 사사했으며, 여러 콩쿨에서 우승하고 예후디 메뉴힌과 아이작 스턴 등 거장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살라이는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d단조, BWV 1004〉에 담겨진 비장미를 표현하고 있으며, 옛 거장의 풍부하고 에너지 가득한 음향을 갖고 있다. 특히 '샤콘느'에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한다. 이자이의 〈소나타 3번〉은 완벽한 기교로 이자이의 낭만성을 한껏 펼치며, 페트로비츠의 〈광시곡 1번〉은 바이올린의 화려하고 극적 표현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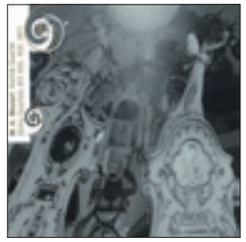
BMC CD 058

바르톡: 이상한 중국인,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독일 청소년 관현악단, 구스타프 말러 청소년 관현악단, 페테르 외트뵈시(지휘)

우리시대의 거장 외트뵈시의 지휘로 만들어진 섬세하고 극적인 바르톡

바르톡은 헝가리의 작곡가로서 자신의 음악에 민속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했다. 하지만 무대음악에 대해서는 특히 환상적인 스토리와 이에 걸맞는 극적이고 표현적인 스타일을 구사했다. 이 음반에 수록된 무용음악 〈이상한 중국인〉은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뒷골목에서 이뤄지는 폭력과 타락, 그리고 중국인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환상적인 결말을 에로틱한 선율과 강렬한 에너지로 표현한다.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은 바르톡의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관현악의 각 악기들을 독주악기처럼 다뤄 다채로우면서도 독특한 음향을 만든다.



BMC CD 079

모차르트: 불협화음, 사냥, 봄

바르톡 사중주단

탁월한 연주와 완벽한 해석,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풍부한 음향

동구권의 대표 사중주단이라면 단연 바르톡 사중주단을 꼽을 수 있다. 바르톡 사중주단은 바르톡의 작품뿐만 아니라 고전 음악도 탁월한 연주를 들려주며 완벽한 해석과 에너지가 넘치는 풍부한 음향을 들려준다. 모차르트의 사중주곡을 수록한 이 음반은 그들의 진면목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명확한 다이나믹과 굵은 선율, 풍부한 사운드는 분위기를 압도한다. 이러한 특징은 〈불협화음 사중주〉가 가진 불협화음의 극적 요소를 상승시키며, 〈사냥 사중주〉의 리듬을 더욱 활력 있게 한다. 〈봄 사중주〉에서는 아름다운 선율이 돋보이게 한다.

BMC CD 084

슈베르트: 악흥의 순간 D.780, 즉흥곡 D.935, 소품 D.604

가보르 찰록(피아노)

섬세한 표현과 은은한 음향으로 슈베르트의 마음을 표현하는 명연

가보르 찰록은 언드라시 쉬프, 졸탄 코치슈, 죄르지 쿠르탁 등 헝가리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거장들로부터 배웠으며, 페렌츠 리스트 음악원과 바르톡 음악원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는 이 음반에서 슈베르트의 비교적 단아한 분위기를 가진 〈악흥의 순간, D. 780〉과 〈즉흥곡, D. 935〉를 연주했다.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작곡한 이 곡들은, 그만큼 슈베르트의 솔직하고 내면적인 고백을 담고 있다. 찰록은 섬세한 표현과 은은한 음향으로 슈베르트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성공하고 있으며, 그 울림은 2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잔잔한 감동을 일으킨다.

BMC CD 095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 리게티: 피아노 연습곡

가보르 찰록(피아노)

기교적으로 완벽한 연주와 훌륭한 음악적 표현

언드라시 쉬프, 졸탄 코치슈, 죄르지 쿠르탁 등 헝가리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거장들로부터 배운 가보르 찰록은 페렌츠 리스트 음악원과 바르톡 음악원에서 가르치며 헝가리의 대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 음반에서 19세기 헝가리를 대표하는 리스트와 20세기 헝가리를 대표하는 리게티의 작품을 연주했다.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은 상당히 빠른 템포에도 기교적으로 완벽한 연주를 들려주면서 음악적 표현을 놓치지 않는다. 리게티의 아홉 개의 연습곡에서는 음들 사이에서 새로운 사운드를 찾아내어 신비로운 아우라를 만든다.

BMC CD 060

리스트: 네 개의 잊힌 왈츠, 헝가리의 역사적 인물들의 초상 등

카메라타 트란실바니카, 죄르지 셀메치(편곡, 지휘)

피아노 원곡을 초월하는 화려한 색을 입힌 탁월한 관현악 편곡

루마니아 태생의 헝가리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죄르지 셀메치는 헝가리와 루마니아 정상의 음악가로서 수많은 성과를 남겼다. 이 음반에 수록된 리스트의 관현악 편곡은 그 중 하나이다. 그의 탁월한 관현악적 감각은 피아노 원곡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화려한 색을 입히며, 또한 이를 통해 리스트의 천재적인 음악세계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 〈네 개의 잊힌 왈츠〉는 왈츠의 리듬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음악적인 완성도가 매우 높은 작품이며, 〈헝가리의 역사적 인물들의 초상〉은 그의 영웅적이고 압도하는 교향시들을 연상시킨다.

BMC CD 068

쇤베르크: 정화된 밤/ 쇼스타코비치: 실내교향곡, Op. 110a

카메라타 트란실바니카, 아드리안 선샤인

피에르 몽퇴와 번스타인의 제자로서 유럽과 미국에서 활약했던 선샤인의 연주

현악 오케스트라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곡을 수록했다. 쇤베르크는 새로운 작곡 기법으로 흥미로운 음악을 작곡했지만, 초기에는 바그너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낭만 작곡가였다. 〈정화된 밤〉은 이 시기의 대표작으로, 바그너적인 두터운 음향과 소재가 된 동명의 표현주의 시에 걸맞는 뛰어난 심리묘사를 들려준다. 쇼스타코비치의 〈실내 교향곡〉은 본래 〈현악사중주 8번〉을 편곡한 것으로, 원곡의 감성을 간직하면서도 원곡을 뛰어넘는 극적 표현력을 갖고 있어, 쇼스타코비치의 동료였던 바르샤이가 편곡한 곡 중 가장 자주 연주되고 있다.

BMC CD 107

모차르트: 교향곡 25번, 교향곡 40번

헝가리 국립 관현악단, 졸탄 코치슈(지휘)

두 곡 뿐인 모차르트의 단조 교향곡을 한 음반에서 모두 수록

모차르트의 교향곡 중에 단조로 작곡된 곡은 25번과 40번 단 두 곡뿐으로, 이 두 곡은 같은 g단조로 작곡되었다. 〈교향곡 25번〉은 영화 '아마데우스'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여 강한 인상을 주는 작품으로, 강렬한 당김음 리듬으로 시작하여 18세기 고전음악으로서 매우 독특한 작품에 속한다. 〈교향곡 40번〉은 모차르트의 교향곡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곡 중 하나로, 비밀스러운 선율에서 많은 시선과 감정을 함축하고 있다. 피아니스트지만 최근에 지휘자로 각광받고 있는 졸탄 코치슈는 열정에 사로잡힌 25번과 세심하게 다가가는 40번을 들려준다.

BMC CD 125

바르톡: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44개의 바이올린 이중주

버르너슈 켈레멘, 카탈린 코커스 (바이올린)

헝가리 음악에 대한 통찰력과 고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만든 완성도 높은 해석

바르톡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는 20세기의 무반주 바이올린 작품으로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 작품은 매우 강렬하면서도 최고의 기술을 요구하여 도전자가 많지 않은데, 리스트 음악원 교수이자 인디애나 대학교 객원교수인 버르너슈 켈레멘은 거침없는 보잉으로 인상적인 사운드를 들려준다. 헝가리 음악에 대한 통찰력과 고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해석을 만들어냈다. 〈44개의 바이올린 이중주〉는 본래 앙상블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곡이지만 무대에서도 연주될 정도로 예술적인 완성도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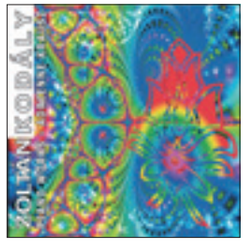
BMC CD 141

코다이: 하리 야노슈 모음곡, 여름 저녁, 헝가리 포크송 변주곡

헝가리 방송 교향악단, 아담 피셔(지휘)

헝가리의 민담을 재치 있게 그린 걸작 〈하리 야노슈〉를 비롯한 코다이의 명곡들

졸탄 코다이는 헝가리의 위대한 민속음악 학자이자 서유럽의 교육을 받은 고전음악 작곡가이면서도 어린이를 위한 음악교육에 큰 공헌을 할 정도로 대중에 대한 시선을 놓지 않았다. 〈하리 야노슈〉는 그의 이러한 모습이 가장 잘 반영된 작품일 것이다. 나폴레옹을 무찔렀다는 헝가리의 허풍쟁이 영웅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이 곡은, 관현악 사운드의 세련미를 유지하면서 각 장면을 알기 쉽게 묘사하여 매우 인기가 높다. 〈여름 저녁〉은 여름 저녁의 나른한 풍경을 그리며, 〈헝가리 포크송 변주곡〉은 코다이의 작곡 예술을 잘 보여주는 걸작이다.



BMC CD 143

코다이: 아홉 개의 작품, 일곱 개의 작품, 마로세크의 춤, 드뷔시 명상곡, 작은 왈츠

아드리에네 크라우스(피아노)

현대적인 감각과 미래를 보는 남다른 안목이 담겨있는 코다이의 피아노 작품들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헝가리의 정상급 피아니스트 크라우스가 헝가리의 대표적인 국민악파 작곡가인 졸탄 코다이를 연주했다. 코다이는 실내악과 관현악곡이 주로 알려져 있지만, 피아노곡은 이들과 달리 현대적인 감각과 미래를 보는 남다른 안목이 담겨있다. 〈아홉 개의 작품, Op. 3〉은 헝가리 민속음악적인 화성에서 현대적인 화음이 더해진 개성적인 작품이며, 〈일곱 개의 작품, Op. 11〉은 내면을 탐험하는 듯한 신비로운 사운드를 갖고 있다. 〈마로세크의 춤〉은 헝가리 풍의 선율과 리듬을 바탕으로 예술가적 감각이 더해져 있다.

BMC CD 156

하이든: 교향곡 60번, 바이올린 협주곡 3번, 피아노 협주곡 11번

크리스토프 버라티(바이올린), 이므레 로만(피아노, 지휘), 부다페스트 실내 교향악단

하이든의 관현악 걸작을 수록한 하이든 서거 200주년을 기념 음반

2009년에 제작된 하이든 서거 200주년을 기념 음반이다. 이 음반에는 하이든의 〈교향곡 60번〉과 〈바이올린 협주곡 3번〉, 〈피아노 협주곡 11번〉이 수록되어있다. 〈교향곡 60번〉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데, 본래 동명의 연극을 위해 작곡된 곡으로, 여섯 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파격적인 작품이다. 〈바이올린 협주곡 3번〉은 오늘날 연주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은 정도로 아름다운 선율과 탄탄한 구성, 섬세한 관현악 사운드를 갖추고 있다. 〈피아노 협주곡 11번〉은 하이든 자신도 만족스러워했던 걸작 중 하나이다.

BMC CD 157

하이든: 십자가상의 우리 구주의 마지막 일곱 말씀

부다페스트 실내 교향악단, 가보르 터카치-너지(지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언급한 일곱 말씀을 음악으로 만든 작품

하이든의 〈십자가상의 우리 구주의 마지막 일곱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한 일곱 말씀을 한 구절씩 낭독하며 음악이 연주될 수 있도록 작곡되었다. 따라서 일곱 말씀을 표현하는 일곱 악장에 서곡과 피날레 '지진'이 붙어 모두 아홉 악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곡은 현악사중주, 관현악, 오라토리오 등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는데, 이 음반은 관현악 버전을 수록했다. 지휘자 터카치-너지는 헝가리 최고의 사중주단인 터카치 사중주단의 설립자이자 제1 바이올리니스트 출신으로, 최근에는 지휘에 매진하며 훌륭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

BMC CD 194 [2CDs]

하이든: 교향곡 103번 '큰북 연타'/ 모차르트: 교향곡 35번 '하프너'/ 슈베르트: 교향곡 9번 '거인'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산도르 베그(지휘)

피부로 전달되는 역동적인 움직임과 세련된 관현악 사운드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예뇌 후버이의 제자이자 졸탄 코다이로부터 작곡을 배웠으며, R. 슈트라우스의 지휘로 그의 작품을 연주했던 산도르 베그. 그는 전설적인 헝가리 사중주단과 베그 사중주단의 설립자이기도 했다. 말년에는 지휘에 그의 음악적 재능을 쏟아 부었는데,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와 함께 했던 시절에 큰 명예를 얻었다. 이 앨범에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두 장의 CD에 기록되어있다. 하이든과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의 비엔나의 음악을 역동적인 움직임과 세련된 관현악 사운드로 그려내어 그만의 활력이 피부로 전달된다.

BMC CD 188

말러: 교향곡 1번 '거인'

헝가리 국립 관현악단, 졸탄 코치슈(지휘)

서사적으로 풀어내면서도 감성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는 코치슈의 사려 깊은 접근

말러의 〈교향곡 1번〉은 장대한 길이와 압도적인 관현악 편성 및 사운드를 지닌 작품으로, '거인'이라는 별명이 어울리는 작품이다. 하지만 별명에 어울리지 않게 실내악적인 관현악 운용과 민요와 유머러스한 선율을 주제로 사용하여, 당시 관객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한 작품이기도 하다. 피아니스트로 더욱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지휘와 작곡에 매진하고 있는 졸탄 코치슈는 이 복잡하고 거대한 작품을 실타래를 풀듯이 섬세하고 사려 깊게 접근한다. 이러한 해석은 이 곡을 보다 서사적으로 풀어내면서도 감성적인 부분을 부각시킨다.

***** 클래식 쇼크 상 디아파종 5 *****

Campanella

www.campanella-musica.com

C 130205

슈베르트: 하프로 듣는 즉흥곡 전곡

마르기트-안나 쥐스(하프)

슈베르트의 고독을 달래는 하프의 새로운 감동

마르기트-안나 쥐스는 불과 20세의 나이로 함부르크의 북독일방송(NDR) 교향악단의 수석 하피스트가 되었으며, 카라얀과 아바도가 지휘했던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객원 하피스트로 10년 이상 함께 연주했던 독일 최정상의 하피스트이다. 그녀는 이 음반에서 본래 피아노곡인 슈베르트의 여덟 개의 즉흥곡을 하프로 연주했다. 하프가 가진 특유의 고상함과 정서적 안정감이 슈베르트의 고독한 심상을 달래며 새로운 감동을 준다. 또한 하프는 오래 지속되는 잔향으로 화성적인 울림이 깊고 명확하게 나타나며 슈베르트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Capriccio

www.capriccio.at

C5262
노스텔지아(향수)
스테파니 호우츠일(메조 소프라노), 찰스 스펜서(피아노)

스테파니 호우츠일의 첫 번째 솔로 앨범
메조 소프라노 스테파니 호우츠일의 첫 번째 솔로앨범. 그녀의 이름은 생소할지 모르나 몇 년 사이 발매된 베르디의 '팔스타프', 모차르트 '레퀴엠'의 명반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번 앨범의 컨셉은 빈, 뉴욕,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잇는 여정이다. 앨범의 근간을 이루는 말러와 아이브스를 비롯해 히나스테라, 피아졸라 등의 작품은 빈 슈타츠오퍼, 줄리어드, 뉴잉글랜드 콘서버토리, 부에노스 아이레스(첫번째 리사이틀)를 잇는 그녀의 음악 여정과도 일치한다. 피아노는 음악을 빌어 나지막히 자신의 내면을 노래하는 호우츠일의 목소리를 다독거린다.

C3004
코르넬리아 휩슈가 부르는 코른골트 & 골드마르크 가곡들
코르넬리아 휩슈(소프라노), 찰스 스펜서(피아노)

짙은 사색 속 '영원'을 노래하는 목소리
카프리치오 레이블의 'Premiere Portraits' 시리즈는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을 알리는 동시에 이들의 음악 여정에 초석이 되고 있다. 본 음반은 2008년 니코 도스탈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소프라노 코르넬리아 휩슈의 솔로 데뷔음반으로서 코른골트와 골드마르크의 가곡이 담겨 있다. 먼 곳의 기다림을 응시하는 듯한 짙은 사색이 묻어나는 그녀의 목소리는 보리물결을 연상케 한다. 음반 첫 곡인 코른골트의 '영원'에서부터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시리즈의 의도를 충분히 살려내는 음반이라 할 수 있겠다.

C5233
아네 슈바네빌름스: 슈베르트/슈레커/코른골트 가곡
아네 슈바네빌름스(소프라노), 찰스 스펜서(피아노)

작곡가들이 그린 경이로운 세계의 모습
슈만과 볼프, 바그너의 가곡으로 압도적인 인상을 남긴 아네 슈바네 빌름스는 이번 신보에서 작품 속에 담겨 있는 경이로운 세계를 주제로 슈베르트 · 슈레커 · 코른골트의 가곡을 녹음했다. 그녀는 슈베르트의 작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는데, 이는 2번 트랙('달에게 : 다시 한번 그대는 어렴풋한 빛으로', D.296)'의 여운에서 실감할 수 있다. 허상일지도 모르는 작품 속의 경이로운 세계는 작곡가 내면의 거울이기도 하다. 접근 방법이나 연주 모두 빠짐없이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는데, 아마도 자연스레 작곡가들의 삶을 떠올려보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C5267
브라운펠스: 대미사(Op.37)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외르크-페터 바이글(지휘) 외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브라운펠스의 진면목이 담긴 음반
슈포어의 고손자이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와 함께 20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작곡가인 발터 브라운펠스의 '대미사(op.37)'가 담긴 음반이다. 브라운펠스의 음악은 그의 사후 생전의 명성과 수준 높은 작품 세계에도 불구하고 흔적을 찾기 어려울 만큼 잊혀졌다. 이번 세기 초부터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그의 음악은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장엄함과 서사적 스케일, 섬세함을 아우른 '대미사'는 단테의 《신곡》을 떠오르게 한다. 브라운펠스의 음악에 매료된 외르크-페터 바이글의 애정이 담긴 음반이기도 하다.

Celestial

www.harmonies.com

13312-2
슈만: 환상곡 Op. 17
리스트: 소나타 S. 178
산도르 팔바이(피아노)

슈만과 리스트가 나눈 교분에 대한 음악적 증거
리스트와 슈만은 데면데면한 사이였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도 교류는 있었으며, 여기 실린 두 곡은 두 작곡가가 나눈 우애를 보여주는 흔치 않은 증거이다. 슈만은 자신의 '환상곡 다장조'에 '프란츠 리스트 씨에게 헌정'했으며 리스트는 자신이 피아노를 위해 쓴 것 가운데서도 대작에 해당하는 '소나타'에 '로베르트 슈만에게'라고 적었다. 팔바이는 슈만의 환상곡에 외향적인 화려함을, 반면 리스트의 소나타에는 내향적이고 명상적인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두 작곡가가 서로에게 미친 영향을 해석으로써 구현하고자 하고 있다.

Dacapo

www.dacapo-records.dk

6.220634
북스테후데와 그의 일파
– 북스테후데, 가이스트, 브룬스, 툰더, 푀르스터
시어터 오브 보이시스, 폴 힐리어(지휘)

북스테후데를 중심으로 한 북독일 작곡가들의 네트워크
디트리히 북스테후데는 당대 최고의 오르간 명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교음악과 세속음악 모두 탁월한 걸작을 많이 남긴 작곡가였으며, 자기 주변에 유능한 음악가들을 끌어들이는 친화력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이 음반에는 북스테후데 및 그가 혈연, 지연, 학연, 교유관계 등 여러 경로로 인연을 맺은 작곡가들의 작품이 실려 있다. 북독일뿐만 아니라 스칸디나비아 지역까지 아우르는 이들 작곡가의 활동영역을 보면 북스테후데가 음악사에서 지니는 위치와 중요성이 새삼 이해될 것이다. 시어터 오브 보이시스는 힐리어의 지휘 아래 낭랑하게 노래한다.

8.226090
한스 아브라함센:
목관 5중주 작품집
앙상블 미드페스트

한스 아브라함센 음악의 이상이 담긴 목관 5중주 작품들
2015년 로열필하모닉 협회상과 2016년 그라베마이어상을 수상한 한스 아브라함센은 이제 더 이상 북구의 인상을 대변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싶다. 본 음반의 가치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에서 따온 같은 이름의 초기 작품에 담겨있는 아브라함센의 음악적 이상을 돌이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의 언어로 편곡한 슈만의 '어린이 정경'과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은 아브라함센 음악적 영감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담백하지만 감상할수록 깊게 우러나는 그윽한 정취가 마음을 사로잡는 작품들이다.

8.226110
크리스토퍼 루스:
교향곡 3 · 4번, 일생, 프로스페로의 방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앨런 길버트(지휘)

음악에 관한 크리스토퍼 루스의 생각이 담긴 작품들
2012-2015년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주작곡가로 활동한 미국의 작곡가 크리스토퍼 루스의 신작들이 담긴 음반이다. 그의 약혼녀인 나타샤에게 헌정한 연애편지, '일생(Odna Zhizn)'을 비롯해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2번을 자신의 언어로 재해석한 '다시쓰기'의 결과물, '교향곡 3번' 및 소통언어로서 음악의 가능성을 탐색한 '교향곡 4번', 앨런 포의 〈적사병의 가면〉을 소재로 작곡한 '프로스페로의 방'이 수록되어 있다. 곡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타악기가 인상적인데, 특히 '프로스페로의 방'에서의 낭랑한 공명은 다른 악기의 색채에 윤기를 더한다.

Daphne

www.daphne.se

DAPHNE1050

마랭 마레: 비올 작품집 제5권(발췌)

레이프 헨릭슨(비올라 다 감바), 라르스-에릭 라르손(테오르보)

영혼의 악기, 비올과 테오르보의 만남

비올의 거의 모든 것을 이루었던 마랭 마레의 5권에 걸친 '비올작품집'은 비올 연주자에게 경전과도 같은 존재감을 갖고 있다. 조르디 사발에게 비올의 정수를 전수받은 레이프 헨릭슨은 '비올작품집'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제5권에서 발췌한 작품들을 음반에 담았다. 인간의 목소리를 읊는 그의 연주는 포근함과 처연함이 교차하는 달빛과 같은 인상을 준다. 비올의 선율을 구름처럼 보듬어주는 라르손의 테오르보는 비올과 '영혼의 짝'을 이룬다. 우아한 연주와 더불어 비올과 테오르보의 깊은 울림을 잘 살려낸 녹음이 돋보인다.

Divine art

www.divineartrecords.com

DDA21227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발췌)

다이애나 보일(피아노)

봄볕을 머금은 터치, 선명하고 따뜻한 연주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는 피아노를 어느정도 배운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연주해보았을 법한 작품이다. 모차르트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모차르트 음악의 출발점이자 그의 천재적인 면모가 담긴 피아노 소나타는 결코 만만한 작품이 아니다. 영국 출신 피아니스트 다이애나 보일은 바흐의 '평균율'과 '푸가의 기법'에 이어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를 녹음했다. 그녀는 긴장감과 극적인 전개 보다는 선명하고, 신중하며 따뜻함을 갖춘 연주를 보여준다. 잔잔하게 떠오르는 순수함이 인상적이다.

Doron

www.doronmusic.ch

DRC 3069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실내악 버전) 외

무자 루바키테(피아노), 상하이 현악 사중주단, 기르두티스 야카이티스(비올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을 실내악으로 접하는 색다른 체험

여기 실린 세 곡은 1806년에 완성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베토벤은 이듬해에 주된 후원자 중 하나인 로브코비츠 공작에게서 '피아노 협주곡 4번'을 피아노와 현악 오중주 편성으로 편곡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문 편곡가인 푀싱어에게 작업을 위탁했다. 실내악 앙상블에 맞게끔 상당한 수정이 이루어졌기에 그 결과는 원곡과 사뭇 다르다. 이 녹음은 현대 악기로 이 곡을 연주한 최초 녹음이다. '창작 주제에 의한 32개의 변주곡'과 '열정 소나타'도 수록되어 있으며 세 곡 모두 실황 녹음이다. 루바키테는 세 곡 모두에서 힘차고 강건한 연주를 들려준다.

DRC 3070

낭만적인 러시아 피아노 삼중주 – 글린카, 아렌스키, 라흐마니노프, 쇼스타코비치

체레시오 삼중주단

러시아의 위대한 피아노 삼중주 전통에 보내는 경의

쇼스타코비치는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가 아니지만, 피아노 삼중주는 러시아에서는 시대를 초월해 낭만적인 장르에 속한다. 미하일 글린카 이래로 러시아 작곡가들은 유독 피아노 삼중주를 개인적인 슬픔이나 지인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장르로 애호해 왔다. 그리고 이런 전통은 숱한 걸작 피아노 삼중주를 낳았다. 루가노 호숫가(전통적으로 체레시오라고 부른다)에 근거지를 두고 명칭도 거기서 따온 다국적 악단 체레시오 삼중주단은 러시아 특유의 애수를 보편적인 정서로 확장해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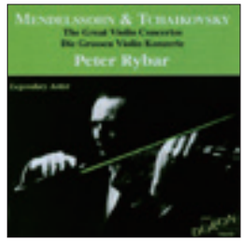
DRC 3071 ****추천음반****

마리오 호센 – '바이올린 임프레션'(Violin Impression)

마리오 호센(바이올린), 비엔나 르 오르페스트, 펠릭스 카라스코(지휘)

이 시대의 명 바이올리니스트가 위대한 선배에게 바치는 경의

1971년에 불가리아에서 태어난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오 호센은 불과 여덟 살 때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여 데뷔한 이후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음반은 스위스 출신 현대 작곡가인 보리스 메르손의 '녹턴'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프리츠 크라이슬러가 작곡하거나 편곡한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호센은 이 위대한 선배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최대한 경의를 표해 치밀하게 연주하며, 수록곡들이 요구하는 화려한 기교를 아무런 무리 없이 소화해내는 그의 능력은 음반 표제대로 '바이올린의 인상'을 듣는 이에게 확실하게 각인해줄 것이다.



DRC 4005

멘델스존,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페터 리바어(바이올린), 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빅토르 데자르첸스(지휘)

옛 대가의 장인정신이 돋보이는 연주

1913년생으로 2002년에 세상을 떠난 체코계 스위스 바이올리니스트 페터 리바어는 바흐부터 스트라빈스키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의 소유자였으나, 슈만의 협주곡을 비롯한 낭만주의 레퍼토리로 주로 명성을 얻었다. 여기 실린 두 곡은 모두 1959년 녹음이며, 리바어는 두 곡 모두 고지식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고 명확한 운궁으로 작곡가에게 충심어린 경의를 표하고 있다. 리바어와 여러 차례 협연한 바 있는 스위스 지휘자 빅토르 데자르첸스 역시 빈틈없는 반주로 리바어와 멋진 호흡을 보여준다.

DRC 4011

프로코피예프,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리카르도 오드노포소프(바이올린), 네덜란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외, 발터 괴어 외(지휘)

바이올린 연주사의 산 증인이 들려주는 생생한 증언

리카르도 오드노포소프는 1914년에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다섯 살 때 공식 데뷔 무대를 가질 정도로 신동으로 인정받았다. 바이올린 연주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두 대가인 레오폴드 아우어와 카를 플레슈를 사사했으며, 1937년에는 이자이 콩쿠르에서 오이스트라흐에 이어 2등상을 수상했다. 또 각각 1962년과 이듬해에 열린 제1회 및 2회 서울국제음악제에 참여해 원숙한 기량을 과시하기도 했다. 오드노포소프는 프로코피예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과 차이콥스키의 협주곡 모두에서 풍부한 잔향을 바탕으로 서정적이며 감미로운 연주를 들려준다.

DRC 4026
루빈스타인, 알캉, 탈베르크:
피아노 협주곡
미하엘 폰티(피아노), 필하모니아 훙가리카 외/ 오트마르 마가 외(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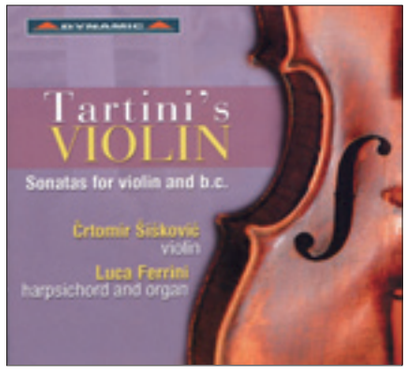
19세기를 수놓은 세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에게 바치는 헌사
1937년생으로 독일 태생 미국 피아니스트인 마이클 폰티는 1964년에 부조니 콩쿠르에서 우승한 뒤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뇌졸중으로 은퇴한 뒤에도 간간이 왼손을 위한 작품들로 연주회를 열고 있다. 이 음반은 그의 전성기인 1968~79년에 녹음한, 19세기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세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루빈스타인, 알캉, 탈베르크의 피아노 협주곡들로 이루어져 있다. KBS 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를 지내 우리에게도 친숙한 오트마르 마가 등 뛰어난 지휘자들의 뒷받침은 폰티의 명료하고 화려한 연주를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

DRC 5050 **[추천음반]**
제미니아니, 타르티니, 비발디:
'사계' 외
마리오 호센(바이올린), 카메라타 오르피카

동시대를 산 세 이탈리아 바로크 거장의 대표작들
첫 곡의 제목 '라 폴리아'는 원래 16~18세기에 유행한 스페인 춤곡의 일종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아르칸젤로 코렐리의 작품이 가장 유명하다. 제미니아니는 코렐리의 작품을 합주 협주곡으로 편곡하면서 기교적인 장식음을 많이 붙여 화려하게 꾸몄다. 타르티니의 '악마의 트릴' 소나타는 작곡가가 꿈속에서 악마에게 영혼을 판 대가로 악상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전설에 걸맞게 까다로운 기교를 요구하는 난곡이다. 말이 필요 없는 명곡 '사계'는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가을–겨울–봄–여름 순서로 수록되었다. 콘티누오가 강조되어 색다른 느낌을 준다.

Dynamic

www.dynamic.it



CDS7744 **[추천음반]**
타르티니:
바이올린과 바소콘티누오를 위한 소나타
츠르코미르 쉬슈코비츠(바이올린), 루카 페리니(하프시코드 & 오르간)

타르티니의 바이올린으로 연주되는 '악마의 트릴'
타르티니의 대표작인 '버림받은 디도'와 '악마의 트릴'을 비롯해 타르티니의 유일한 '스코르라투라' 작품인 '파스토랄' 등이 수록된 음반이다. 본 음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탈리아 파푸아의 성 안토니 대성당에 소장된 악보와 슬로베니아 피란의 타르티니 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타르티니의 바이올린(아마티, 1715~1725년 제작)으로 연주된 그야말로 원곡에 충실한 연주라는 점이다. 타르티니 전문가인 쉬슈코비츠는 타르티니의 독주 바이올린 소나타가 담긴 전작에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원곡의 전율을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음반이다.

CDS 7746
베토벤: 세 개의 바이올린 소나타, Op. 30 (플루트 편곡)
파비오 데 로사(플루트), 에마누엘레 델루키(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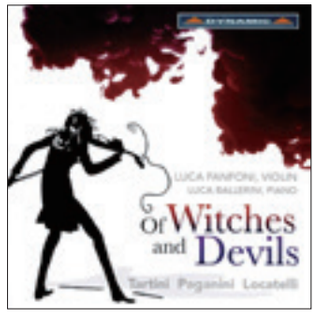
19세기의 위대한 플루티스트인 드루에가 플루트로 편곡한 바이올린 소나타
플루티스트 파비오 데 로사는 20세기의 위대한 플루티스트 중 한 사람인 오렐레 니콜레의 제자로, 정상급 연주자들과 함께 앙상블 연주와 음반 녹음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피아니스트 에마누엘레 델루키는 2012년 알캉–치머만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로, 이탈리아의 차세대 거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음반은 베토벤의 〈봄 소나타〉와 〈크로이처 소나타〉 사이에 작곡한 세 곡의 바이올린 소나타의 플루트 편곡을 수록했다. 편곡자는 19세기 전반에 큰 명성을 얻었던 플루티스트인 드루에로, 베토벤을 플루트로 듣는 귀중한 기회이다.

CDS7747
슈테펜 헬러: 피아노 작품집
루이지 제로사(피아노)

헬러 작품 세계에 영향을 준 음악가들의 흔적
헝가리 출신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슈테펜 헬러의 피아노 작품이 담긴 음반이다. 작곡가로서 헬러는 작품 대부분을 피아노를 위해 작곡했을 정도로 피아노에 대한 관심이 각별했다. 그는 또한 여러 음악가들과 교류했는데, 본 음반에는 특히, 헬러 작품 세계에 영향을 준 음악가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어린이 정경'은 슈만의 작품을 그의 방식으로 해석한 것이며, '아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악보'에는 슈만 · 멘델스존 · 리스트의 작품으로부터 얻은 영감과 헌사가 담겨 있다. 루이지 제로사는 투명하고 정갈한 터치로 작품의 분위기를 살려내고 있다.

CDS7748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피아노 작품 2집
다리오 보누첼리(피아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음악의 연원과 재능이 담긴 음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피아노 작품 전집 시리즈의 두 번째 음반으로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환타지아'(1번 트랙)는 모차르트의 영향을, '2개의 소품'(2~3번 트랙)은 슈베르트의 '악흥의 순간'을 떠올려 볼 수 있다. 또한 '소나타'(4~7번 트랙)에서는 베토벤과 훔멜 등의 요소들이 변화무쌍한 매력을 뽐내고 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유명한 작품들에 비해서는 담백한 느낌일지 모르나 본 음반의 작품들은 모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음악의 연원과 재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오래된 시간(8번 트랙)', '안단테 C단조(9번 트랙)', '기분과 상상(10–14번 트랙)'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 세계 최초 녹음.**



CDS7749 **[추천음반]**
타르티니 · 파가니니 · 로카텔리의 바이올린 작품
루카 판포니(바이올린), 루카 발레리니(피아노)

마녀와 악마의 바이올린
마녀와 악마라는 단어가 자극적 이긴 하나 '악마의 트릴', '마녀의 춤'에 이어 로카텔리의 '화성의 미궁'이 수록된 본 음반을 한단어로 설명하기에는 가장 적절할 것이다. 판포니의 날선 바이올린과 깔끔한 음향은 이 같은 분위기를 한층 부각시키고 있다. '마녀'와 '악마'에 이어 본 음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파가니니가 생전에 사용했던 바이올린과 새로 발견된 악보에 의거해 연주된 '기도소타나'일 것이다. 본 음반에 수록된 작품들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당시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의 잔상을 어렴풋이 느껴볼 수 있다.

Farao

www.farao-classics.de

B108093

체코작곡가들의 피아노 3중주

아토스 트리오

보헤미안의 멜랑콜리와 백일몽을 노래하는 셋의 목소리

"셋의 목소리, 하나의 소리". '삼총사'의 모토를 떠오르게 하는 아토스 삼중주단의 신보이다. 프랑스와 러시아에 이어 체코에 이른 이번 신보에는 작품의 뛰어난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둠키'의 그늘에 가려진 작품, 드보르작의 '피아노 3중주 3번'과 상실의 슬픔이 담겨있는 스메타나의 하나뿐인 '피아노 3중주'가 담겨있다. 보헤미안의 멜랑콜리와 상실의 슬픔에 기인한 백일몽을 노래하는 셋의 목소리는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스메타나의 '피아노 3중주' 2악장(6번 트랙)의 뭉클함이 인상 깊다.

Gothic

www.gothic-catalog.com

G-49297

바흐: 오르간을 위한 작은 책(오르겔뷔흘라인)

조안 리핀콧(오르간)

바흐의 젊음이 생동하는 역동적인 오르간 코랄 작품

바흐의 〈오르간을 위한 작은 책〉은 쾨텐 시절에 정리되었지만 실제 작곡은 20대 후반 전후의 젊은 시절이었던 바이마르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르간 초보자에게 코랄을 연주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작은 책'이라는 제목은 실제로 악보의 크기나 수록곡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기 때문이었다.
리핀콧은 미국 정상급 오르가니스트로, 여러 음반을 통해 바흐 음악에 정통함을 인정받았다. 그녀가 연주한 프린스턴 신학교에 설치된 중급 규모의 오르간은 선명한 음색과 민첩한 움직임을 갖고 있어 역동적이고 신선하다.

Gramola

www.gramola.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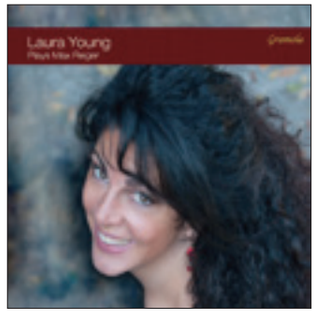
99059

슈만: 시인의 사랑, 아라베스크 등

코르넬리아 호네크(소프라노), 슈테판 고트프리트(피아노), 크리스토프 바그너-트렌크비츠(낭송)

모방하기 어려운 맑고 깨끗한 미성을 가진 소프라노가 부르는 시인의 사랑

슈만의 〈시인의 사랑〉은 클라라와 결혼을 한 1840년에 작곡된 명가곡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걸작으로 손꼽힌다.
여러 가곡을 모은 연가곡이지만, 전체가 음악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매우 극적으로 진행된다. 코르넬리아 호라크는 빈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파두아에서 바로크 보컬 트레이닝을 받은 소프라노로, 모방하기 어려운 맑고 깨끗한 미성을 갖고 있다.
그녀는 〈시인의 사랑〉을 매우 높은 고성으로 부르면서 자신의 목소리가 가진 최고의 매력을 보여준다.
이에 대비되는 바그너-트렌크비츠의 차분한 중저음의 낭송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99072

레거: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무반주 첼로 모음곡 1, 3번 등

로라 영(기타)

원곡의 폴리포니를 완벽하게 재현하면서 감각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기타 편곡 연주

막스 레거는 20세기에 바흐의 음악적 유산이 새롭게 부각 되는 데에 크게 기여한 작곡가였다. 이 음반에 수록된 무반주 바이올린과 무반주 첼로를 위한 작품은 곡 제목이나 악장, 구성 그리고 음악 자체에 이러한 그의 모습이 여실히 반영되어있음은 물론이다. 이 음반은 레거의 음악에 특별한 영감을 얻는 한 기타리스트가 자신의 열정을 가득 담은 결과물이다. 로라 영은 우리시대 최고의 기타리스트 중 한 사람인 데이빗 러셀의 제자로, 원곡의 폴리포니를 완벽하게 재현하면서 기타 특유의 아려한 잔향으로 원곡을 능가하는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낸다.

99104

슈베르트:

왈츠 메들리, 고귀한 왈츠, 고별 왈츠, 종달새 왈츠 등

파울 바두라-스코다(피아노)

바두라-스코다가 직접 엮은 슈베르트 왈츠 메들리 수록

왈츠하면 '빈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작품들이 바로 연상된다. 그런데 우리시대 최고의 고전음악 전문가인 파울 바두라-스코다는 오히려 슈트라우스 2세의 작품은 〈박쥐 폴카〉와 〈피치카토 폴카〉, 〈시계 폴카〉 등 세 곡의 폴카를 연주한 대신, 왈츠는 슈베르트에게 양보했다. 특히 그는 열 세곡의 왈츠를 엮어 왈츠 메들리를 만들어 인생의 희로애락을 파노라마로 들려주는 듯 매우 흥미로운 음악을 들려준다. 또한 10분이 넘는 대곡 〈고귀한 왈츠〉을 비롯하여 〈고별 왈츠〉, 〈종달새 왈츠〉 등 슈베르트의 명곡들이 수록되었다.

Klanlogo

www.klanglogo.de

KL1514
브람스: 교향곡 3번, 4번
프랑크푸르트 브란덴부르크 주립 관현악단, 하워드 그리피스(지휘)

'독일적'이라는 강박관념에서 자유로운 독일 악단의 브람스
1950년생 영국 지휘자 하워드 그리피스는 2007/08년 시즌부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브란덴부르크 주립 관현악단의 음악총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2015년 6월에 녹음한 브람스의 두 교향곡에서 전반적으로 템포를 빠르게 잡고 짜임새를 가볍게 해 여유롭고도 여백의 미가 돋보이는 해석을 들려준다. 그리피스는 '무겁고 뻑뻑하게 해석하는 것이 독일적인 해석이라는 사고방식의 최대 피해자가 브람스'라는 하이팅크의 지적을 분명 명철하게 통찰하고 있으며, 브란덴부르크 주립 관현악단 역시 기민하고 유려한 연주로 그의 해석에 잘 부응하고 있다.

KL1517
바흐: 이탈리아 협주곡
사이먼 보루츠키(리코더) & 앙상블

리코더와 바소콘티누오로 편곡된 바흐의 이탈리아 협주곡
이탈리아 음악은 바흐의 작품세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바흐는 비발디를 비롯한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작품을 편곡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바흐가 편곡한 비발디, 마르첼로의 협주곡과 바흐 자신의 '이탈리아 협주곡'에는 이탈리아로부터 얻은 바흐의 영감이 집약되어 있다 할 수 있겠다. 사이먼 보루츠키는 이를 리코더와 바소콘티누오로 다시 편곡했다. 플루트를 떠올릴 정도로 눈부신 리코더의 빛깔은 또 다른 영감의 순간을 보여준다. 무궁무진한 바흐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Lipkind

www.lipkind.info

LP002 [SACD]
사랑스런 첼로 소품집 〈소품과 민속음악〉
가브리엘 리프킨트(첼로), 알렉산드라 러브첸스키(피아노)

현재 젊은 첼리스트들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행보를 걷고 있는 1977년 텔아비브태생의 가브리엘 리프킨트가 설립한 자체 프로덕션에서 발매한 첼로 소품집. 알베니스의 탱고, 프로코피에프의 왈츠, 스크리아빈의 로망스, 크라이슬러의 중국의 북, 멘델스존의 무언가, 글라주노프의 아랍 멜로디, 비에냐프스키의 스케르초-타란텔라,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같은 사랑스런 소품들이 전례없는 하이엔드 레코딩 퀄리티를 통해 농현과 홀톤의 환상적인 앙상블로 펼쳐진다.

[오디오파일 필청 음반]

LP004 [3 SACDs]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가브리엘 리프킨트(첼로)

텔아비브 태생 가브리엘 리프킨트는 새롭게 떠오르는 젊은 첼리스트로서 , 커다란 성공을 거두며 자체 프로덕션을 설립하여 자신의 연주를 음반화 하고 있다. 리프킨트가 녹음한 바흐의 첼로 모음곡 전곡은 탁월한 에솔성과 개성적인 해석을 보여주는 그의 회심의 음반으로, 고딕성당에서 연주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홀톤과 Full HD 같은 고해상도의 음질이 더해져 하이엔드 오디오 유저들의 마음까지 단박에 사로 잡을 수 있다.

[오디오파일 필청 음반]

Loft

www.loft.cc

LRCD-1146
잿더미로부터: 바흐, 프랑크, 엘가 등의 오르간 연주
크리스타 래키쉬(오르간), 그레이그 셰러(플루트), 캐슬린 시아노(첼로)

18세기부터 21세기까지 아우르는 오르간 음악
2012년 1월 1일에 코네티컷 주의 소머즈 조합 교회는 화재로 전소되고 말았다. 하지만 절망을 딛고 2014년 5월에 새로운 건물을 준공했으며, 9월 7일에 오르간 설치를 완료했다. 이 음반은 이를 기념하여 바흐의 〈전주곡과 푸가, BWV543〉과 〈오르간 소나타 5번, BWV529〉를 비롯하여, 19세기 프랑스 심포닉 오르간의 거장인 프랑크의 〈전주곡, 푸가, 변주곡, Op. 18〉 등을 수록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첼로와 오르간이 색다른 연주를 들을 수 있으며, 우드먼의 플루트와 오르간을 위한 〈성당 삼부작〉의 감성적인 멜로디는 매우 매력적이다.

MD&G

www.mdg.de

303 0751-2
막스 레거: 피아노 삼중주 전곡
파르나수스 삼중주단

막스 레거 서거 100주년 기념 재발매
막스 레거의 피아노 삼중주는 단 2곡이다. op.2는 그의 나이 18세에 작곡되었는데, '바이올린-비올라-피아노'의 구성은 브람스의 영향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초기작품 임에도 그의 변주곡에서 느낄 수 있는 막스 레거 특유의 색채가 이미 짙게 드리우고 있다. 만년의 작품인 op.102는 '바이올린협주곡'의 한 대목을 연상시키는 유장한 선율미가 압권이다. 파르나수스 삼중주단은 막스 레거의 정수를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연주를 보여준다. 1998년 발매 이래 레퍼런스에 오른 음반으로써 막스 레거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재발매 되었다.

317 1929-2
헨델: 오르간 협주곡 4번(HMV.289-294)
루돌프 이니히(오르간)

오르간으로 편곡된 헨델의 오르간 협주곡
헨델의 오르간 협주곡은 오라토리오나 오페라의 막 사이에 연주하기 위해 작곡되었다. 그의 오르간 협주곡 4번은 오라토리오 《에스더》, 《아탈리아》, 《드보라》, 《알렉산더의 향연》을 위한 것이었다. 이 작품에는 마르셀 뒤프레 등에 의한 오르간 편곡 버전들이 존재하는데, 본 음반은 헨델에 대한 헌사로 가득한 자무엘 데 랑게의 편곡 버전이 쓰였다. 자무엘 데 랑게는 그가 살았던 당시의 연주방식과 작곡 기법으로 헨델의 오르간 협주곡을 재탄생 시켰다. 탄탄함과 유연함이 살아있는 이니히의 연주는 MDG를 통해 발매된 그의 다른 음반에 뒤쳐지지 않는다.

905 1928-6
라인켄: 하프시코드 작품
소냐 켐니처(하프시코드)

바흐에게 영감을 준 라인켄의 토카타
북스데후데와 더불어 북독일 오르간 계보의 계승자이자 바흐의 음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라인켄의 하프시코드 작품이 수록된 음반이다. 그의 토카타는 특히 바흐의 토카타(BWV. 910~916)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 본 음반에 수록된 '토카타 A장조'(1번 트랙)과 '토카타 G장조'(7~10번 트랙)는 각각 바흐의 '토카타 E단조(BWV. 914)'와 '토카타 D단조(BWV. 913)'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자유롭고 영감 넘치는 라인켄 음악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소냐 켐니처의 연주를 뛰어난 음질로 감상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멀티채널 SACD]

Naxos

www.naxos.com

8.559786
폴 볼스: 피아노 작품 1집
인벤시아 피아노 듀오

폴 볼스 음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음반
본 음반에는 미국의 작곡가이자 작가인 폴 볼스의 피아노 작품이 담겨 있다. 더불어 레너드 번스타인이 그를 위해 작곡한 작품과 인벤시아 피아노 듀오의 멤버인 안드레이 카스파코프가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폴 볼스의 작품들도 수록되어 있다. 폴 볼스 작품 세계에서 피아노 작품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가 관심을 기울인 라틴 아메리카 민속 음악과 재즈 요소는 물론, 간결함 속에 선율미와 위트를 갖춘 음악적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폴 볼스 음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음반이다. **['과야닐라'(2번 트랙), '5의 초상'(7번 트랙), '정원의 콘스탄스 어스큐'(11번 트랙), '민요 전주곡들'(12~18번 트랙), '절정 : 웰랜드 라스롭'(19번 트랙), '목가 : 인디오'(21번 트랙), '3개의 노래(안드레이 카스파코프 피아노 2중주 편곡)'(28~30번 트랙),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31~33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3370
에릭 노르드그렌: 베리만 모음곡
슬로바키아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드리아노(지휘)

잉리히 베리만의 대표작에 흘렀던 음악들
흑백 영화 속에 인간의 실존을 담아낸 잉리히 베리만의 영상 미학은 '세계 유산'으로 남아있다. 그의 대표작에는 에릭 노르드그렌의 음악이 있었다. 본 음반에는 '여인의 향기', '한 여름밤의 미소', '산딸기', '마법사', '기쁨의 정원'에 쓰인 음악이 수록되어 있다. 슬로바키아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음반을 녹음한 아드리아노가 본 음반을 위해 기울인 노력은 각별하다. 그는 현존하는 악보와 사진 복사본, 실제 영상에 등장하는 음악 단편, 베리만에 관한 연구에 근거해 악보를 제작했다. 베리만 영화의 또 다른 면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음반이다.

8.571372
존 아일랜드: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음악
라파엘 월피슈(첼로), 스완 오케스트라, 데이비드 커티스(지휘)

현악 오케스트라로 편곡된 존 아일랜드의 작품
본 음반에는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해 편곡된 영국의 작곡가 존 아일랜드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다울랜드 모음곡'(10~13번 트랙)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실내악 또는 피아노 작품으로써 이는 성악 작품과 더불어 아일랜드의 작품 세계를 대표하는 장르이기도 하다. 'G장조 소나타'(1~3번 트랙)와 '독백'(6번 트랙)은 본 윌리엄스와 딜리어스를, '카바티나'(9번 트랙)는 엘가의 작품을 떠오르게 한다. 원곡 보다 영국적인 색채를 한껏 느낄 수 있는 편곡과 연주가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다울랜드 모음곡'(10~13번 트랙) 제외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124
라벨: 관현악 작품 3집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 레너드 슬래트킨(지휘)

해끄무레한 음향, 산뜻함이 넘치는 라벨의 관현악 편곡 작품들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와 함께 라벨의 작품들을 녹음하고 있는 레너드 슬래트킨의 신보이다. 본 음반에는 라벨이 관현악으로 편곡한 샤브리에, 드뷔시, 슈만, 무소르그스키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4곡이 남아있는 슈만의 《사육제》와 더불어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은 본 음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전람회의 그림》중 '리모주의 시장' 앞에는 원곡에 빠져있는 '프롬나드'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슬래트킨이 직접 편곡한 것이다. 원곡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느껴볼 수 있어 흥미롭다. 악단은 해끄무레한 음향 속 산뜻함 넘치는 연주를 보여준다.

8.573540
슈만: 피아노 변주곡 작품들
올리비에르 샤위주(피아노)

담백한 색채로 구현하는 슈만의 피아노 미학
슈만 특유의 자유롭고 서정적인 색채가 담겨있는 변주곡들은 그의 음악적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장르이다. 잘 알려진 '아베그 변주곡' 뿐만 아니라 슈만의 피아노 변주곡은 여러 작품이 있다. 이 중에는 베토벤 · 슈베르트 · 쇼팽의 작품을 모델로 한 것도 있고, 슈만 일생의 마지막 순간을 대변하는 '유령 변주곡'도 있다. 본 음반에는 이외에도 아직까지 생소한 슈만의 또 다른 변주곡들이 망라되어있다. 알베니즈와 뒤카의 음반에서 다채로운 이미지들을 훌륭하게 표현했던 올리비에 샤위주는 선명하고 담백한 색채로 슈만의 피아노 미학을 드러내고 있다.

[추천음반]
8.573517
빅터 허버트:
첼로 협주곡 1 & 2번
마크 코소워(첼로), 얼스터 오케스트라, 조앤 팔레타(지휘) 외

드보르작에 영감을 준 허버트의 첼로 협주곡
생소하게 느껴지는 빅터 허버트의 이름은 오늘날 피츠버그 교향악단의 지휘자, 미국 작곡가 · 작가 · 출판인 협회(ASCAP)의 창립자로 남아있다. 그는 작곡가로서 '나일강의 마법사' 등 다수의 오페레타를 작곡하기도 했는데, 그의 음악은 첼로로부터 시작되었다. 슈투트가르트 궁정 악단 시절에 작곡한 첼로 협주곡 1번과 뉴욕에서 작곡한 첼로 협주곡 2번은 각각 당시 허버트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품으로써 특히, 첼로 협주곡 2번은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에 영감을 주었다. 마크 코소워의 첼로가 그리는 낭만의 인상은 그윽하다.

8.573581
림스키 코르사코프:
교향곡 1 & 3번
베를린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게르하르트 슈바르츠(지휘)

림스키 코르사코프 1번과 3번의 개정판 수록
각각 2년차를 두고 개정된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교향곡 1번과 3번은 비슷한 분위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느낌을 준다. 1884년 개정된 교향곡 1번은 조성의 변화와 더불어 러시아 적인 색채를 짙게 직접적으로 내뿜고 있다. 2년 뒤 개정된 교향곡 3번은 이전 버전과 같은 조성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1번에 비해 자연스러운 전개와 너른 스케일을 갖고 있으며, 한층 세련된 방식으로 러시아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슈바르츠코프와 베를린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작품의 스케일과 극적 묘미를 살린 연주를 보여준다.

8.573542
레오 브라우어: 베니카심 현주곡 외
미구엘 트라파가(기타), 가르시아 레알 필하모닉, 올리베르 디아스(지휘)

10년 만에 다시 빛을 본 브라우어의 9번째 기타 협주곡 최초 녹음
본 음반에는 로드리고의 '아랑훼즈 협주곡'과 스위스 출신 작곡가 프랭크 마틴의 '기타'와 더불어 레오 브라우어의 '베니카심 협주곡'이 수록되어 있다. 타레가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작곡된 '베니카심 협주곡'은 2002년 초연 이후 잊혀 졌다가 2012년 트라파가에 의해 다시 연주된 작품인데, 이번에 세계 최초로 녹음되었다. 트라파가의 날렵한 연주가 돋보이는 '아랑훼즈 협주곡'은 경쾌하다. 수평선 너머 한 낮의 열기를 머금은 저녁 노을을 떠오르게 하는 '베니카심 협주곡' 2악장(9번 트랙)은 본 음반의 백미이다.
***로드리고, '아랑훼즈 협주곡'(1~3번 트랙) 제외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554–55 **[2CDs]**
카르발료: 세레나타 《안젤리카》
전원의 합주, 페드로 카스트로(지휘) 외

18세기 포르투갈 음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곡가 카르발료의 작품
18세기 포르투갈의 음악가 카르발료는 1778년 다비드 페레스의 뒤를 이어 포르투갈 왕실 음악가이자 음악 교사로 임명되었다. 카르발료는 마리아 1세 여왕의 재위 기간 중 모두 10개의 세레나타를 작곡했는데 《안젤리카》는 그 중 첫 번째 작품이다. 그가 살았던 당시 포르투갈 작곡가의 오페라 장르 작품 중 카르발료의 작품이 차지하는 수는 40%에 이를 정도로 당시 포르투갈 음악에서 카르발료의 비중은 높았다. 《안젤리카》는 사랑하는 이와의 도주로 인해 일어나는 한바탕 소동과 갈등의 화해를 재치있고 유쾌하게 표현하고 있다.
***세계 최초 녹음**

8.578305 **[추천음반]**
스토코프스키의 편곡 작품들
티모시 월든(첼로),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호세 세레브리에르(지휘)

불꽃놀이를 연상시키는 스토코프스키 편곡 작품의 진수
작곡가 스토코프스키의 면모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바흐와 무소르그스키, 바그너 등의 작품을 소재로 작곡된 그의 편곡 작품들이다. 세레브리에는 낙소스 레이블을 통해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스토코프스키의 편곡 작품을 녹음하고 있는데, 본 음반에 이르러 드디어 스토코프스키 편곡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음반 한 장에 담고 있다. 악단은 기대 이상의 멋진 연주를 들려준다. 광활한 공간 속에 퍼지는 형형색색의 이미지는 불꽃놀이를 연상시킬 정도로 놀랍다.

8.573394

존 루터: 시편 축제 외

세인트 앨번스 성당 합창단(합창),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앤드류 루카스(지휘)

시편을 소재로 한 존 루터의 작품들

개인의 감성과 종교적인 엄숙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시편〉은 대중성과 규범성의 균형이 돋보이는 존 루터의 작품과 비슷한 측면을 갖고 있다. 본 음반에는 존 루터가 〈시편〉을 소재로 작곡한 '시편축제', '시편150', 2011년 로열 웨딩을 위한 작품인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를 비롯해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가 수록되어 있다. 앤드류 루카스는 존 루터의 '마니피카트'와 '테데움'이 수록된 전작에 이어 작품의 반향과 선율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있다. 진중한 접근이 인상적인 음반이다.

***'시편축제'(1~9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3280

퍼셀:
극장음악 2집

아라디아 앙상블, 케빈 말론(지휘) 외

퍼셀 작품 세계의 또 다른 축인 극장 음악을 조명하는 시리즈 두 번째 음반

헨리 퍼셀의 작품은 앤섬 등 그의 직책에서 비롯된 종교음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디도와 아이네아스', '요정의 여왕' 등의 작품을 위시한 극장 음악도 상당 수 존재한다. 본 음반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퍼셀 작품 세계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극장 음악을 조명하는 시리즈의 두 번째 음반으로서 '결혼한 미남', '노총각' 등 다섯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전작을 비롯해 헨델의 작품 등에서 레퍼런스급 연주를 보여주고 있는 케빈 말론과 아라디아 앙상블의 아기자기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연주가 압권이다.

8.570436

하차투리안: 교향곡 2번 〈종〉, 레르몬토프 모음곡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드미트리 야블론스키(지휘)

굽이치는 강물을 연상시키는 하차투리안 음악의 매력

장대한 스케일과 생동감이 인상적인 하차투리안의 '교향곡 2번'과 '레르몬토프 모음곡'이 수록된 음반이다. 그가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작곡한 '교향곡 2번'은 전쟁과 폭력에 대한 항의이자 진혼곡으로서 작품 내내 등장하며 하차투리안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한 '종'의 모티브가 인상적이다. '레르몬토프 모음곡'은 하차투리안의 대표작 '가면무도회'의 원작자 레르몬토프를 소재로 한 연극에 맞춰 작곡되었는데, '가면무도회'의 분위기를 물씬 느껴볼 수 있다. 굽이치는 강물을 연상시키는 악단의 연주는 하차투리안 음악의 매력을 시원스레 드러내고 있다.

8.570618

관 시아: 교향곡 2번 〈기대〉 외

뉘른베르크 심포니오케스트라, 샤오 언(邵恩, 지휘)

《대지 진혼곡》으로 유명한 중국의 대표 작곡가 관시아의 작품들

중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관시아(關峽)는 당나라 시인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을 소재로 작곡한 같은 이름의 작품과 2008년 쓰촨성 대지진 발발 5주기를 맞아 작곡한 최초의 중국어 진혼곡인 《대지 진혼곡》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본 음반에는 인간의 고뇌와 기대, 선과 악의 양면을 소재로 한 교향곡 2번 '기대'와 《대지 진혼곡》 1악장의 관현악 버전, 오페라 《비탄의 여명》의 한 부분이 담겨 있다. 쇼스타코비치, 엘가, 바그너를 떠오르게 하는 요소들이 중국적 스케일 속에 어우러져 있는 작품 면면이 색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세계 최초 녹음**

8.559789

랜들 톰슨: 레퀴엠

필라델피아 싱어즈, 데이비드 헤이즈(지휘)

20세기 미국 합창 음악의 위대한 유산

'미국 합창 음악의 선구자'로 불리는 랜들 톰슨의 걸작, '레퀴엠'이 수록된 음반이다. '레퀴엠'은 랜들 톰슨이 그의 친구와 동료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작곡하였다. 합창은 애도하는 자와 성도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각 상실의 슬픔과 이를 위로하는 성경 구절을 번갈아가며 문답하는 형식을 통해 위로의 단계로 나아간다. 바흐의 B단조 미사에서 인용한 이중 푸가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찬양하는 마지막 부분은 장대한 여운을 남긴다. 2016년 5월 낙소스 신보 중 단연 첫 손에 꼽고 싶은 음반이다. 소장과 감상을 권한다. ***세계 최초 녹음**

8.573417

체르니: 그랜드 피아노 협주곡 외

로즈마리 턱(피아노), 잉글리시 체임버 오케스트라, 리처드 보닝(지휘)

너른 스케일 속에 노래하듯 흐르는 화려한 피아노 선율

낙소스 레이블을 통해 리처드 보닝과 함께 칼 체르니의 작품을 녹음하고 있는 로즈마리 턱의 신보이다. 화려함, 벨칸토 오페라에서 영감을 얻은 피아노의 흐름과 더불어 웅장한 스케일까지 느껴볼 수 있는 체르니의 피아노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주로 벨리니의 오페라에 대한 체르니의 영감에 주안점을 두었던 이전 음반에 이어 본 음반에서는 로시니의 오페라로부터 받은 영감을 느껴볼 수 있다. 진중한 가운데 자유롭고 산뜻한 음색을 보여주는 악단과 피아노의 연주는 '낭만주의 피아노 협주곡'을 듣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로시니의 오페라 《코린트의 포위》 중 '그리스인의 행진곡'에 의한 연주회용 변주곡(5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3469

라흐마니노프:
회화적 연습곡 & 악흥의 순간

보리스 길트버그(피아노)

입체적이고 다채로운 인상을 능숙하게 표현하는 길트버그의 터치

2013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보리스 길트버그는 2014년, 2015년 내한 협연으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그는 2015년부터 낙소스 레이블과 함께 음반을 녹음하고 있는데, 슈만과 베토벤의 작품이 수록된 전작에 이어 본 음반에서는 라흐마니노프의 '회화적 연습곡'과 '악흥의 순간'을 선택했다. 길트버그는 입체적이면서도 흑백의 명암과 현란한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다채로움을 능숙하게 드러내는 터치로 작품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다. 길트버그의 매력이 한껏 배어있는 '악흥의 순간 6번'(15번 트랙)은 리스트의 작품과 다를 바 없는 인상을 준다.

8.573430

카밀로 토니: 피아노 음악 3집

알도 올리비에르, 파우스트 본젤리(피아노)

20세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토니의 바흐에 대한 헌사

본 음반은 20세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토니의 작품 세계를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온음계적 요소가 보이지만 반음계적 기법과 음렬주의적 경향이 보다 강한 시기(1941~1945, 1~6번 트랙), '바흐에 대한 헌사'(7~9번 트랙)으로 대표되는 12음 기법 시기(1945~1951), '판타지 스케르초'(11~13번 트랙)에 보이듯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색채가 나타나는 1960년대 시기가 그것이다. 그가 피아노 버전으로 편곡한 알반 베르크의 '서정 조곡'(10번 트랙)은 신빈악파의 열렬한 추종자였던 토니의 면모를 보여준다. ***세계 최초 녹음**

8.573447

마르티누: 가곡 4집

야나 흐로초바 발랑게로바(메조소프라노), 조르조 쿠클(피아노)

마르티누의 가곡을 재조명한 시리즈 마지막 음반

조르조 쿠클은 낙소스 레이블을 통해 마르티누의 피아노 작품과 함께 가곡의 녹음에도 참여해왔다. 2003년 쿠클이 마르티누의 피아노 작품 녹음에 착수할 당시 마르티누 센터로 부터 받은 악보에는 실수로 마르티누의 가곡 악보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는 이를 계기로 마르티누의 가곡을 재조명하게 되었다. 마르티누 음악의 중요한 요소인 체코와 슬로바키아 민속음악을 탐구한 작품, '새로운 슬로바키아 가곡들'과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 들렀던 남프랑스의 흔적이 남아있는 '동요'에 이르기까지 마르티누의 소중한 유산이 본 음반에 담겨 있다.

'동요'(32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3472

앤서니 버지스: 관현악 작품

브라운 대학 오케스트라, 폴 필립스(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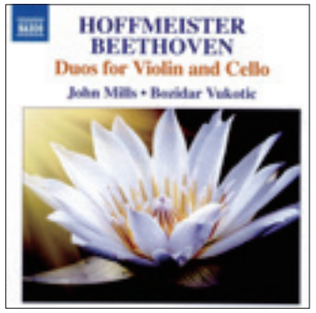
음악가로 남고 싶었던 앤서니 버지스의 음악들

우리에게 《시계태엽오렌지》로 알려져 있는 앤서니 버지스의 관현악 작품이 수록된 음반. 앤서니 버지스 본인이 원했던 모습은 작가보다는 음악가였다. 음악가 버지스의 모습이 담긴 본 음반에서는 그의 또 다른 대표작인 《태양과는 전혀 다르지》를 지초로 작곡된 'Mr.W.S'(미스터 윌리엄 셰익스피어, 1~7번 트랙)과 버지스 본인의 70세 생일을 기념해 일생의 회고를 담은 '미스터 버지스의 연감(11~24번 트랙)'이 대위법을 연상시키듯 절묘하게 맞물린다.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기와 더불어 작가이자 음악가였던 버지스를 기념해 감상할 만한 음반이다.

***세계 최초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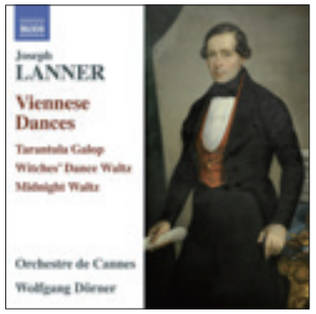
8.573526
셉투라:
금관 7중주를 위한 음악 4집
셉투라

금관 칠중주로 편곡된 르네상스 시대 음악
라모와 헨델에서부터 시작해 쇼스타코비치와 프로코피에프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금관 7중주 편곡의 진수를 보여준 셉투라의 여정이 이제 금관 앙상블의 본령에 이르렀다. 금관 앙상블의 매력을 극대화 시킨 조반니 가브리엘리의 작품을 기초로 팔레스트리나, 라수스(라소), 빅토리아의 작품을 금관 앙상블로 편곡한 본 음반에는 르네상스 음악의 황금기가 담겨 있다 할 수 있겠다. 음반에 수록된 모든 작품에서 이전 음반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분위기를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편곡의 묘미를 느껴볼 수 있다. 감상을 권한다.



8.573541
호프마이스터 & 베토벤: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주
존 밀스(바이올린), 보지다르 부코티치(첼로)

비슷한 시기, 비슷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 두 작곡가의 작품들
출판업자로 잘 알려진 호프마이스터는 작곡가로서 교향곡, 실내악, 협주곡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많은 작품을 작곡하기도 했다. 낙소스에서는 작곡가 호프마이스터가 남긴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번 음반에는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베토벤의 이중주 작품도 같이 수록되었다. 본 음반에 담긴 호프마이스터의 작품은 1778년 경, 베토벤의 작품은 1790~1792년 에 작곡되었다. 작곡 당시 세체니의 궁정에서 봉직했던 호프마이스터와 본에서의 마지막 시절을 보내고 있던 습작 작곡가 베토벤의 모습은 자연스레 이후 행보를 떠오르게 한다.



8.573552
요제프 라너:
빈의 춤곡들
칸 오케스트라, 볼프강 되르너(지휘)

빈 왈츠를 탄생시킨 요제프 라너의 춤곡들
오늘날 슈트라우스 부자에 가려져 생전만큼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요제프 라너는 빈 왈츠의 성립에 막대한 기여를 했던 인물이다. 생전에 슈트라우스 1세와 '라너 사중주단'을 결성하기도 했던 라너의 업적은 민간에서 유행하던 춤곡을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것에 있다. 본 음반에는 라너가 작곡한 다양한 춤곡이 수록되어 있다.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의 트럼펫 솔로로 등장하는 '스키리아의 춤곡들'(10번 트랙)과 라너의 마지막 작품이자 연주 당시 21번의 앙코르를 받았던 '씐부른 왈츠'(10번 트랙)는 그의 이름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하다.

8.573556
하르샤니:
〈파리의 헝가리인〉 외
찰스 웨더비(바이올린, 비올라), 데이비드 코레바(피아노)

하르샤니의 작품 세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음반
마르티누, 미할로비치, 베크, 탄스만, 체레프닌과 더불어 '파리파'로 활동했던 헝가리 작곡가 하르샤니의 파리 시절은 일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는 음반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단순 명료한 구조(신고전주의적 요소)와 재즈를 비롯한 탱고, 보스턴, 폭스트롯과 같은 춤곡의 요소를 통해 드러난다. 헝가리 춤곡의 요소와 파리에서의 경험이 세련스레 어우러지는 '파리의 헝가리인'은 그의 음악 여정을 결산하는 일생 마지막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작품의 구조와 춤곡의 요소(특히 재즈 요소)를 잘 살려낸 연주가 인상적이다.
***세계 최초 녹음**

Ondine

www.ondine.net

ODE1247-2
에릭 에센발즈: 누가수난곡 & 종교음악 작품들
라트비아 라디오 합창단, 리가 신포니에타, 지그바르츠 클랴바(지휘) 외

'수난과 부활' 이후 10년간의 사색이 담긴 누가수난곡
에릭 에센발즈의 출세작이라 할 수 있는 '수난과 부활'이 탄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이 시점에서 그는 그동안 축적된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동원해 예수의 수난과 부활을 음악적으로 다시 한 번 해석했다. 한사람의 인간이자 메시아로서 예수의 성격이 조화를 이루는 《누가복음》을 주제로 작곡된 '누가수난곡'이 그것이다. '누가수난곡'이야말로 아르보 페르트의 '요한수난곡'에 견줄만한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더 테레사의 삶, 이누이트족의 설화, 베르다의 시를 주제로 작곡된 종교음악 역시 시릴 듯 아름다운 에센발즈 음악의 매력을 담고 있다.

ODE1274-2
라우타바라: 루바이야트, 오페라 라푸스틴(발췌) 외
헬싱키 뮤직센터 합창단,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욘 스토르고르즈(지휘) 외

심연의 동굴에서 메아리치는 깊은 울림, 라우타바라의 최근 작품
핀란드의 대표작곡가 라우타바라의 작품은 릴케의 시를 바탕으로 작곡된 '천사들의 방문'에서 보이듯 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음반에도 시에서 영감을 얻은 그의 최근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라우타바라의 2015년 작품인 '루바이야트'는 페르시아의 시인 우마르 하이얌의 시 《루바이야트》를 소재로 작곡되었으며, 2014년 작품인 '발라다'는 스페인의 시인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의 시를 음악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이외 '라푸스틴'에서 발췌한 작품 등라우타바라의 최근 작품 스타일과 더불어 특유의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는 음반이다.

Opus Arte

www.opusarte.com

OA CD9041 D
사이미르 피르구: 나의 노래
사이미르 피르구(테너), 피렌체 5월 음악제 오케스트라, 스페란차 스카푸치(지휘)

사이미르 피르구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음반
파바로티, 도밍고, 아바도에게 인정받은 목소리, 테너 사이미르 피르구는 이제 매트와 코벤트가든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오페라 무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가고 있다. 본 음반에는 그의 장기인 이탈리아 레퍼토리를 비롯해 프랑스, 독일 레퍼토리를 망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칠리아의 《아를르의 여인》 중 '양치기의 흔한 이야기(페데리코의 탄식)'(5번 트랙)과 마스네의 《베르테르》 중 '어찌하여 나의 잠을 깨우는가...봄바람이여'(11번 트랙)가 인상적이다. 낭랑하고 막힘없는 고음, 호소력 짙은 목소리 등 피르구의 진가를 느낄 수 있다.

Orchid Classics

www.orchidclassics.com

ORC100052

차이코프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피렌체의 추억

러시안 비르투오시 오브 유럽, 유리 지슬린(리더)

교향곡에 필적하는 음악적 내용을 가진 차이코프스키의 대표적인 실내악곡

차이코프스키를 대표하는 두 곡의 실내악 작품인 〈현을 위한 세레나데〉와 〈피렌체의 추억〉을 모두 수록했다. 이 두 곡은 교향곡에 필적하는 음악적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뛰어난 걸작들에 빛이 가려져 있다. 이 음반은 이 사실이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바이올린부터 더블베이스까지 풍부하고 조화로운 음향으로 차이코프스키가 의도했을 조직적인 흐름을 만든다. 이를 통해 〈현을 위한 세레나데〉는 더없이 맑고 청명한 음악적 심상을 그려냈으며, 〈피렌체의 추억〉은 차이코프스키가 의도했던 열정적인 연주의 본보기를 들려준다.

ORC100053

풀렝크: 바이올린 소나타/ 포레: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라벨: 치간, 아바네라

캘럼 스마트(바이올린), 리차드 어틀리(피아노)

3인 3색 벨 에포크의 프랑스 바이올린 작품

2010년 메뉴힌 콩쿠르 우승자인 캘럼 스마트가 벨 에포크의 프랑스 음악을 연주했다. 풀렝크는 두터운 화음을 가진 바그너와 모호한 음향을 가진 인상주의를 거부하고 명료하고 투명하며 열정적인 음악을 추구했다. 그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그의 전형을 보여주는 음악으로, 드라마적인 긴장감이 넘치는 걸작이다. 반면에 포레는 인상주의의 원류로서, 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은 고전적이면서도 프랑스적인 우아함이 가득하다. 이 둘 사이에 위치한 라벨의 〈치간〉과 〈아바네라〉에서 스마트의 열정적인 스트로크와 강렬한 표현력이 빛을 발한다.

ORC100054

세바스찬 자코: 라이네케 · 이베르 · 닐센 플루트 협주곡

세바스찬 자코(플루트), 오젠세 심포니 오케스트라, 데이비드 비예르크만(지휘)

2014년 칼 닐센 콩쿠르 우승자, 세바스찬 자코의 데뷔앨범

2014년 칼 닐센 국제 플루트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바스찬 자코의 데뷔음반이다. 음반에는 모두 3곡의 플루트 협주곡이 수록되어 있다. 슈만과 멘델스존의 서정이 느껴지는 라이네케의 작품과 플루트의 섬세한 표현이 인상적인 이베르의 작품을 비롯해 실내악적 분위기와 플루트의 맑은 색채가 매력적인 닐센의 작품이 그것이다. 플루트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들 작품은 특히, 세바스찬 자코의 투명한 음색과 안정적인 기교를 드러내기에 적합한 듯 느껴진다. 군더더기 없고 날렵한 연주가 압권이다.

Orlando Records

www.orlando-records.com

or 0024

안전벨트를 매라:
비르투오조 무반주 바이올린 작품집

알렉세이 이구스데만(바이올린)

정상급 비르투오조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성공한 작곡가인 이구스데만의 진면목

이구스데만은 피아니스트 주형기와 함께 '이구스데만 & 주'라는 이름으로 코믹 음악 연기 듀오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정상급 비르투오조 바이올리니스트로 활약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공을 거둔 작곡가이도 하다. '안전벨트를 매라'는 특이한 제목의 이 음반은 이러한 그의 진면목을 담고 있다.

"비르투오조란 무엇인가? 아무 이유 없이 그 누구보다도 빨리 연주하고 싶어 하는 음악가다." 이구스데만이 내린 이 정의는 열 두 곡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자작곡들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또한 서정적인 멜로디와 어울려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

Our Recordings

www.ourrecordings.com

6.220614

찬하우젠: 레코르다레, 볼롱: 당신의 목소리, 코한: 알토리코더와 현악을 위한 음악

미칼라 페트리(리코더), 오덴세 심포니 오케스트라, 크리스토프 포펜(지휘)

정상의 리코더 연주자가 연주한 독일, 프랑스, 구동독 작곡가의 명협주곡

정상의 리코더 연주자인 미칼라 페트리가 세 곡의 리코더 협주곡을 녹음했다. 〈레코르다레〉의 독일 작곡가 마르쿠스 찬하우젠은 자신이 리코더 연주자로서, 리코더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한 걸작이다. 또한 거대한 관현악과 리코더가 이루는 조화가 뛰어나다. 〈양으로부터 나오는 당신의 목소리〉의 프랑스 작곡가 파브리스 볼롱은 관현악의 다양한 악기로부터 다채로운 음색을 끌어내어 산뜻하고 화려한 음악을 들려준다. 구동독의 중요한 교향곡 작곡가였던 귄터 코한의 협주곡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진 구동독의 뛰어난 음악적 성과를 대변한다.

Simax

www.simax.no

PSC1333

예술 음악 속의 하르당에르 피들 – 할보르센, 크반달, 니후스

오실드 브레이에 니후스(하르당에르 피들), 잉프리드 브레이에 니후스(피아노) 외

매혹적인 음색과 토속적인 정취가 가득한 하르당에르 피들의 매력

노르웨이의 옛 민속악기인 하르당에르 피들은 비올라 다모레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어떤 악기와도 다른 토속적이고도 매혹적인 음색을 지닌 악기다. 이 음반은 할보르센의 '포세그림'(물에 사는 요정의 일종으로, 정중하게 대하면 사람에게 나무를 춤추게 하고 폭포를 멈추게 하는 음악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을 비롯한 19~20세기 노르웨이 작곡가들의 하르당에르 피들 작품을 담고 있다. 연주를 맡은 오실드와 잉프리드는 자매지간이자 작곡가 스벤 니후스의 딸이다. 두 사람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선배 작곡가들의 작품까지 정성을 다해 연주하고 있다.

PSC1801

플라그스타드가 부르는 찬송가

키르스텐 플라그스타드(소프라노), 시그바르트 포틀란(오르간)

20세기 초 전설적인 바그네리안 소프라노가 부르는 소박한 성가

노르웨이 출신의 플라그스타드는 20세기 초 전설적인 바그네리안 소프라노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음반은 그녀가 오르간 반주로 부른 성가를 수록한 것으로, 61세 때인 1956년에 녹음되었다. 두터운 관현악을 뚫고 뻗어 나오던 영웅적인 목소리가 소박한 오르간 반주에 대중적인 성가를 부른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만큼 이 음반은 플라그스타드에게 매우 뜻 깊은 음반이며, 또한 그녀의 순수한 목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하다. 단순한 노래에서도 짙은 호소력은 여전하며, '다 찬양하여라' 등 익숙한 찬송가도 여러 곡 들린다.

PSC1355

폴 바젤레르: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 전곡

모르텐 조이덴(첼로), 다니엘 블루멘탈(피아노)

푸르니에의 스승, 폴 바젤레르의 작품

피에르 푸르니에의 스승인 폴 바젤레르는 첼로 연주자인 동시에 작곡가로 활동했다. 오늘날 '프랑스 모음곡'을 제외한 그의 작품은 거의 연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 또한 잊혀졌다. 이는 그가 편곡자로 알려진데다가 규모가 큰 작품도 없고, 작품들이 교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본 음반에 수록된 바젤레르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은 내면의 목소리가 담긴 작품, 복고풍 작품, 교본으로 구분된다. 소품들이지만, 잊혀진 작곡가 바젤레르의 작품 세계를 재구성하기에 부족함 없는 음반이다.

Solo Musica
www.solo-musica.de

SM 235
비발디: 사계/ 피아졸라: 항구의 사계
리브 미달(바이올린), 도이치 캄머오케스터 베를린
흠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완벽한 8계
"완벽한 기술" "경이적인 기교" "특출한 바이올리니스트의 굉장한 표현력" 리브 미달에 쏟아지는 찬사는 항상 최상급이다. 그녀는 2015년에 잘츠부르크에서 영예로운 '파울-로체크 상'을 수상하고 다수의 콩쿠르를 석권했다. 이 음반에서 미달은 자신의 경력과 찬사에 부합하는 연주를 들려준다. 비발디의 〈사계〉에서는 흠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완벽하며, 피아졸라의 〈항구의 사계〉는 적극적이고 드라마틱한 표현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각 작품의 특징에 적합한 연주를 들려주는 도이치 캄머오케스터와의 조합 역시 최고이다.

Sono Luminus
www.sonoluminus.com

DSL-92200 [CD + PureAudio Blu-ray]
크로싱 오버: 20세기 무반주 합창곡
스카이락 보컬 앙상블
완벽한 밸런스와 안정된 해석으로 기대를 충족시키는 뛰어난 연주
미국의 뛰어난 솔리스트들과 음악교육가로 구성된 스카이락 보컬 앙상블이 20세기 무반주 합창곡들을 녹음했다. 존 태브너는 20세기의 대표적인 성가 작곡가지만, 여기서는 성가가 아닌 〈나비의 꿈〉을 들을 수 있다. 장자를 비롯하여 여러 나비 관련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든 독특한 작품이다. 케드로프의 〈주기도문〉은 길이가 짧지만 감동의 여운은 매우 크다. 이외는 모두 죽음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미국의 거장인 윌리엄 슈만의 〈죽음의 캐롤〉 등 다양한 스타일의 작품들을 망라했다. 완벽한 밸런스와 안정된 해석으로 모든 곡이 기대를 충족시킨다.

Steinway & Sons
www.steinway.com

30036
파야: 허무한 인생, 삼각모자, 사랑은 마술사 등
바네사 페레스(피아노)
감각적인 선율과 맛깔스러운 리듬으로 연주한 파야의 스페인 무곡들
베네수엘라 출신의 바네사 페레스는 북미와 남미, 그리고 유럽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정력적인 피아니스트이다. 그녀는 스페인 국민악파를 이끌었던 마누엘 데 파야의 피아노곡을 연주했다. 오페라 〈허무한 인생〉의 유명한 '스페인 무곡'과 대표작인 발레곡 〈삼각모자〉의 여러 특징적인 무곡들, 그리고 발레곡 〈사랑은 마술사〉 모음곡을 감각적인 선율과 맛깔스러운 리듬으로 연주했다. 이와 함께 동시대에 프랑스 인상주의를 이끌었던 드뷔시가 스페인에 대한 인상을 그린 〈그라나다의 밤〉, 〈포도주의 문〉 등을 수록하여 비교 감상할 수 있다.

30056
우테 렘퍼: 아홉 가지 비밀
우테 렘퍼(보컬, 낭독), 파울로 코엘료(낭독)
렘퍼의 폭넓은 음악세계가 펼쳐져 있는 아홉 개의 노래, 그리고 코엘료의 목소리
정상의 카바레송 가수인 우테 렘퍼가 '연금술사', '브리다', '흐르는 강물처럼' 등 베스트셀러 소설가로 잘 알려진 파울로 코엘료의 글에 직접 음악을 붙였다. 그녀의 음악은 카바레를 넘어 재즈와 탱고, 월드뮤직을 넘나들며, 관능적인 흐름을 가진 서정적인 선율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음반의 아홉 곡의 노래에는 렘퍼의 폭넓은 음악세계가 펼쳐져 있다. 이와 함께 세션 반주를 배경으로 세 편의 글을 낭독한다. 그녀의 낭독은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며, 여기에 코엘료도 낭독에 참여하여 그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Tactus
www.tactus.it

TC850002
19~20세기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 도니체티, 로타 외
루치아노 프랑카(오보에), 필리포 판티에리(피아노)
이탈리아 기악 음악의 전통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음반
레오네 시니갈리아, 조반니 볼초니, 주세페 가리볼디, 조반니 스감바티, 아밀카레 차넬라, 알레산드로 롱고 등 19~20세기에 활동한 이탈리아 작곡가들이 쓴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이중주 작품을 모은 음반. 도니체티나 '대부'로 유명한 니노 로타 등 잘 알려진 작곡가들도 있지만 작품 자체는 매우 생소할 것이다. 성악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기악 전통이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음반이다. 라 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오보에 수석인 프랑카는 명료하면서도 정성스런 연주를 들려주며, 판티에리 역시 그를 충실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Tonkuenstler
www.tonkuenstler.at

TON1001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 장미의 기사 모음곡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 사도 유타카(지휘)
유서 깊은 오스트리아 악단이 들려주는 외향적인 슈트라우스
빈에 소재를 두고 있는 톤퀸스틀러(음예술) 오케스트라는 2007년에 창단 100주년을 맞은 유서 깊은 악단으로, 2013년에 일본 지휘자 사도 유타카를 차기 상임지휘자로 선임했다(임기는 2015년부터). 사도 유타카는 이 오케스트라 특유의 무겁지 않고 외향적인 음색을 십분 살려 '영웅의 생애'의 각 에피소드마다 색채감을 뚜렷이 드러내며,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 역시 각 성부마다 소릿결이 잘 살아 있는 명료하고 산뜻한 연주로 지휘자의 해석에 부응하고 있다.
'장미의 기사 모음곡' 역시 비슷한 기조로 해석되었지만 한층 더 화사하고 난숙한 분위기이다.

ARTHAUS MUSIK

Arthaus

www.arthaus-musik.com

Arthaus 109156 [Blu-ray]

[LEGENDARY PERFORMANCES]

전설적인 오페라 공연시리즈 중 블루레이로 재발매된 타이틀을 소개합니다.

베르크: 보첵

프란츠 그룬트헤버(보첵), 힐데가르트 베렌스(마리), 발터 라프에이너(고적대장), 필립 랑그리지(안드레스) 외/ 빈 슈타츠오퍼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클라우디오 아바도(지휘)

1987년 빈 슈타츠오퍼의 역사적인 보첵 프로덕션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빈 슈타츠오퍼에 재임할 당시 지휘한 오페라 가운데 지휘자의 현대적인 감수성과 남다른 카리스마를 발산한 걸작으로 일컬어지는 명품 프로덕션으로 손꼽히는 베르크의 '보첵'이 향상된 화질과 음질을 통해 Blu-Ray로 발매되었다. 연출가 아돌프 드레센의 현실적인 무대와 연극 이상의 집중도 높은 연출을 통해 이 고전희곡에 담긴 미래지향적인 함의와 현실에 대한 거울을 되돌아볼 수 있는 동시에, 아바도의 거장적인 솜씨와 성악가들의 명품연기를 통해 신빈악파의 베르크가 추구한 새로운 예술성을 다시금 이해할 수 있다. 베렌스의 마리역은 그 이상이 없을 정도로 농염하고 폭발적이고 보첵역의 그룬트헤버 또한 그 배역에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다.

Arthaus 109191 [Blu-ray]

[LEGENDARY PERFORMANCES]

모차르트: 마술피리

마르티 탈벨라(자라스트로), 에디타 그루베로바(밤의 여왕), 페터 슈라이어(타미노),
이레아나 코르투바스(파미나) 외/ 빈 필하모커와 빈 슈타츠오퍼 합창단/ 제임스 레바인(지휘)

1982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레바인이 지휘한 '마술피리'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대표적인 간판 오페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마에스트로들이 이 작품을 지휘함으로써 자신의 명성을 드높여왔다. 이러한 전통의 흐름 가운데 제임스 레바인 또한 그 이름을 빛냈으니, 그것이 바로 이 1982년 실황 영상물이다. 1932년 파리에서 태어난 장-삐에르 폰넬이 1978년 펠젠라이트슐레를 위해 제작한 무대로서 텍스트와 일체를 이루는 무대와 동선의 감동이 최신기술로 리마스터링된 Blu-Ray를 통해 새롭게 다가온다. 이 역사적인 영상물에 등장한 가수들 또한 초호화캐스팅으로서, 탈벨라, 그루베로바, 슈라이어, 코르투바스, 머레이를 비롯하여 빼어난 파파게노로 손꼽히는 크리스티안 뵈쉬가 극의 품격과 완성도를 높인다.

Arthaus 109193 [Blu-ray]

[LEGENDARY PERFORMANCES]

글룩: 타우리데의 이피게니아

쥘리에테 갈스티앙(이피게니아), 로드니 길프리(오레스테), 데온 반 데르 왈트(파이라데) 외/
취리히 오페른하우스 '라 신틸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윌리엄 크리스티(지휘)

2001년 취리히 오페른하우스에서 열린 글룩의 걸작 무대

그리스 신화로부터 영감을 받아 1774년 글룩이 작곡한 '타우리데의 이피게니아'는 환상적인 음악과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오랜 동안 외면당했던 비운의 오페라다. 이렇듯 화석화된 바로크 오페라에 새로운 기운을 입혀 재탄생시킨 프로덕션이 바로 여기 담긴 2001년 취리히 오페른 하우스 무대로서, 2000년대 초반 잘츠부르크에서 모차르트의 다 폰테 3부작을 연출하며 명성이 높아진 독일의 명 연출가 클라우스 구트(Claus Guth, b.1964)의 혁신적인 무대를 통해 구현되었다. 큰 가면을 쓴 캐릭터들과 그대로의 인물들이 심리 드라마를 펼치는 이 무대의 음악을 담당한 지휘자는 바로크 음악의 거장 윌리엄 크리스티. 음악과 영상 모두 충격과 감동의 연속이다.

Arthaus 109195 [Blu-ray]

[LEGENDARY PERFORMANCES]

베버: 자유의 사수

베아나 그뢰셀(쿠노), 잉가 니엘슨(아가테), 마티 살미넨(카스파르), 페터 자이페르트(막스) 외/
취리히 오페른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니콜라우스 하르논쿠어트(지휘)

1999년 취리히 오페른하우스에서 열린 기념비적인 '자유의 사수'

전설적인 감독으로 손꼽히는 루트 베르그하우스의 역작으로 손꼽히는 취리히 오페른하우스의 베버 '자유의 사수' 실황이 Blu-Ray 디스크로 업데이트 되어 발매되었다. 훨씬 향상된 화질을 통해 베르그하우스가 의도한 뒤틀린 공간의 입체미와 조명의 색감 대비가 강렬하게 다가오는 동시에, 독일의 전설로서의 무게감과 모더니즘 계역의 연극전통의 리얼리티 또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 오페라에 대한 몇 안 되는 오페라 프로덕션 영상물 가운데 가장 훌륭한 미장센을 보여주는 이 취리히 실황의 또 다른 영웅은 바로 2016년 세상을 떠난 니콜라우스 하르논쿠어트. 엄청난 집중력과 정확한 악보재현, 영웅적인 제스추어와 스케일로 독일 징슈필의 극한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Arthaus 109197 [Blu-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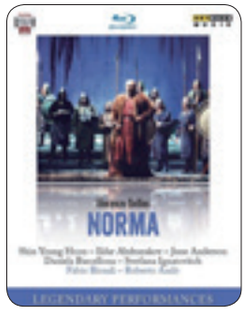
[LEGENDARY PERFORMANCES]

푸치니: 나비부인

피오렌차 체돌린스(초초상), 프란체스카 프란치(스즈키), 마르첼로 조르다니(핑케르톤), 후안 폰스(샤플레스) 외/ 베로나 아레나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다니엘 오렌(지휘)

제피렐리의 2004년 베로나 야외무대 나비부인 실황

야외 오페라 무대의 메카로 일컬어지는 이탈리아 베로나의 야외 오페라 페스티벌 가운데 2004년 푸치니 '나비부인' 실황 영상물. DVD 시절부터 명연으로 그 명성이 높았던 프로덕션으로서 우리 시대의 오페라 연출의 마지막 거장 프랑코 제피렐리의 사실적이고 아름다운 무대와 연극 이상의 극적 몰입도를 자랑하는 연출이 빛을 발한다. 특히 성악진도 최고 수준으로서 좋았던 시절의 조르다니가 멋진 핑케르톤을 선보이고 폰스 또한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초초상역으로 등장한 피오렌차 체돌린스! 그녀의 섬세하면서도 정확한 연기와 비단을 찢는 듯한 목소리로부터 소녀의 청순함까지를 커버하는 가창은 푸치니가 의도한 이 비극적인 캐릭터에 강인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Arthaus 109199 [Blu-ray]

[LEGENDARY PERFORMANCES]

벨리니: 노르마

신영훈(폴리오네), 준 앤더슨(노르마), 일다 아브드라자코프(오로베소), 다니엘라 바르첼로나(아달지사) 외/ 유로파 갈란테 오케스트라(시대악기)/ 파비오 비온디(지휘)

2001년 테아트로 레지오 디 파르마 실황

이전 DVD 시절 발매되어 화제를 일으켰던 파르마 '노르마' 실황이 업스케일링을 거친 뒤 Blu-Ray로 재발매되었다. 미국 소프라노 준 앤더슨의 노르마는 품격 높인 가창과 압도적인 에너지감을 선보이며 이 어렵디 어려운 배역을 나름대로의 스타일로 해석해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러시아 출신의 명가수로서 현재 세계 오페라 하우스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일다 아브드라자코프는 최고의 오로베소를, 다니엘라 바르첼로나는 비할 바 없는 아달지사를 연기해낸다. 특히 시대악기로 구성된 유로파 갈란테와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인 파비오 비온디의 연주는 흔히 듣던 '노르마'와는 전혀 다른 사운드를 통해 작품의 색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Arthaus 109201 [Blu-ray]

[LEGENDARY PERFORMANCES]

비발디: 오를란도 푸리오소

마릴린 혼(오를란도), 수잔 패터슨(안젤리카), 캐서린 쿨만(알치나), 산드라 워커(브라다만테) 외/ 샌 프란시스코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랜달 베허(지휘)

1989년 샌 프란시스코 오페라단의 바로크 오페라 오를란도 푸리오소

비발디는 '사계'를 비롯한 협주곡의 왕으로 알려진 바로크 작곡가로서 그는 기악 작품 외에 수많은 종교음악과 더불어 50여편에 가까운 많은 양의 오페라를 작곡한 다작의 왕이기도 하다. 그의 오페라는 유독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실험과 꾸준한 복원, 치열한 발굴을 통해 점차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 '오를란도 푸리오소'는 그의 오페라 가운데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이자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데, 이탈리아의 명연출가 피에르 루이지 피치가 무대를 맡은 1989년 샌 프란시스코 오페라의 프로덕션이 가장 훌륭한 무대로 일컬어진다. 마릴린 혼을 비롯한 당대 최고의 미국 가수들이 총출연한 중요한 바로크 오페라 영상물!

Arthaus 109203 [Blu-ray]

[LEGENDARY PERFORMANCES]

로시니: 도둑 까치

카를로스 펠러(파브리찌오), 누치 콘도(루치아), 다비드 쿠에블러(쟈네토), 이레아나 코르투바스(니네타) 외/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와 쾰른 오페라 합창단/ 브루노 바르토레티(지휘)

1987년 쾰른 오퍼 실황, 로시니 세미세리아의 표본

로시니의 '도둑까치'는 오페라 세리아도 아니고 오페라 부파도 아닌 세미세리아(semiseria) 장르로 분류된다. 남녀 주인공의 사랑과 부녀간의 사랑은 진지하고 비극적인 분위기로 전개되지만 희극적인 상황이 자주 끼어들기 때문. 1987년 쾰른 오퍼 실황인 이 무대는 미카엘 함페가 연출한 것으로서 이레아나 코르투바스, 브렌트 엘리스, 알베르토 리날디를 비롯하여 카를로스 펠러, 누치 콘도, 다비드 쿠에블러 등등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 한 자리에 모인 고전적인 로시니 명품 프로덕션. Blu-Ray로 재발매되면서 무대 조명의 음영과 선명도, 밝기가 한층 향상되어 마우로 파파뇨가 제작한 무대 전체가 DVD에서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발산한다.

Arthaus 109205 [Blu-ray]

[LEGENDARY PERFORMANCES]

풀랑크: 카르밀파 수녀들의 대화

다그마 쉘렌베르거(블랑슈), 안야 실야(수녀원장), 크리스토퍼 로버트슨(포르스 자작) 외/ 테아트로 알라 스칼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리카르도 무티(지휘)

2004년 라 스칼라에서 펼쳐진 무티의 카르밀파 수녀들의 대화

2004년 라 스칼라에서 펼쳐진 리카르도 무티 지휘의 풀랑크의 오페라 '카르밀파 수녀들의 대화'는 지금까지도 동작품에 대한 전설적인 프로덕션으로 아직까지도 그 명성이 높다. 캐나다 출신의 화제의 연출가 로버트 카슨이 2001년에 연출한 무대를 관람한 무티가 직접 요청하여 라 스칼라 무대에서 의뢰, 제작한 것. 무티의 지휘는 정확하고 확신에 차 있으며 투명한 동시에 영롱한 분위기까지를 자아내며 이 대작 오페라에 찬연한 생명력과 뜨거운 드라마를 창조해낸다. 독일 소프라노 다그마 쉘렌베르거는 이 오페라에서 대혁명의 혼란을 피해 수녀원을 찾은 블랑쉐역으로 라 스칼라 데뷔를 하며 평단으로부터 극찬을 받았고, 그 외 여성 가수들 또한 최고의 가창을 보여준다.

Arthaus 109207 [Blu-ray]

[LEGENDARY PERFORMANCES]

야나체크: 영리한 암여우

토마스 알렌(산림관), 에바 제니스(암여우), 안나 미누틸로(여우), 리부제 마로바(산림관의 아내) 외/ 파리 오케스트라, 샤뜰레 합창단/ 찰스 매케라스(지휘)

1995년 파리 샤뜰레 극장 실황, 영리한 암여우

체코 음악의 대가인 영국 지휘자 찰스 매케라스가 지휘봉을 잡은 파리 샤뜰레 극장의 야나체크 '영리한 암여우' 전곡 실황 영상물. 니콜라우스 하이트너의 동화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연출에 힘입어 매순간 진지하면서도 훌륭한 인간반영적인 우화가 펼쳐진다. 특히 하이트너와 그의 팀이 만들어낸 무대의 영상미는 가장 최근에 발매되기 시작한 동 오페라 프로덕션이 발매되기 전까지 가장 아름다웠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특히 밥 크로울리와 장-끌로드 갈로타가 만든 무대와 의상은 지금 보아도 여전히 황홀하다. 샤뜰레 극장의 훌륭한 음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이 영상물은 1995년 프랑스 평론가 협회 그랑 프리를 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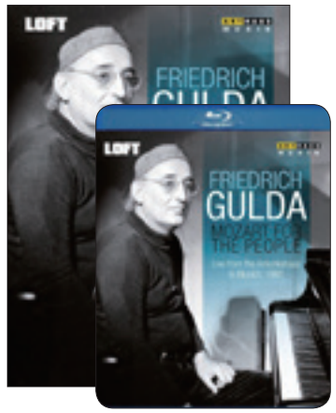
Arthaus 109219 [Blu-ray]

JS 바흐: 마태수난곡 (발레버전)

존 노이마이어(안무)/ 함부르크 발레단

감동스런 발레로 재탄생한 바흐의 마태수난곡

현재 함부르크 발레단의 디렉터 겸 수석안무가로 활약 중인 세계적인 무용가 존 노이마이어는 인류 최고의 교회음악으로 손꼽히는 바흐의 마태수난곡을 감동적인 발레로 표현해내었다. 이 발레버전의 마태수난곡은 1981년 6월 25일 초연된 이후 지금까지 공연 때마다 크나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05년 바덴-바덴 축전극장에서 있었던 공연실황을 담은 것으로, 노이마이어 본인이 마지막으로 직접 무대에 섰던 마태수난곡이기도 하다. 페터 슈라이어가 복음사가를 맡고 베른트 바이클, 미츠코 시라이 등의 정상급 가수들이 솔로를 맡았던 1980년 성 미카엘리스 교회의 라이브 레코딩이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는데, 노이마이어는 일관된 완성도의 공연을 위해 초연무대부터 이 한 가지 레코딩만을 고집해왔다. 무용수들의 표정과 몸짓을 다양한 앵글로 포착한 일반적인 카메라 연출 외에도 무대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는 원거리의 고정 카메라 앵글로도 작품 전체를 감상할 수 있다.



Arthaus 109174 [DVD]
Arthaus 109189 [Blu-ray]

Mozart For The People

프리드리히 굴다(피아노)

프리드리히 굴다, 모차르트의 진정한 자유로움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재즈까지 섭렵한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프리드리히 굴다. 그의 1981년 2월 27일 뮌션의 아메리카하우스에서 열린 라이브 콘서트 전체가 실린 귀중한 영상물이 발매되었다. 프로그램은 All-Mozart로서 그의 피아노 소나타 K.282, K.311, K.332, K457과 더불어 환상곡 K.475, 그리고 굴다가 직접 피아노 솔로로 편곡한 '마술피리' "신성한 전당에서"를 연주한다. 검은 폴로티에 트레이드 마크인 모자를 눌러쓴 채 자유롭게 연주를 해 나가는 그의 연주는 지금은 기대할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와 생동감 넘치는 모차르트의 전형을 보여준다. 특히 크리스탈처럼 투명한 그의 음색과 천혜의 비르투오시티로 표현되는 날렵하면서도 온화한 선율미는 그가 얼마나 뛰어난, 그리고 얼마나 변칙적인 피아니스트였는지를 새삼 깨닫게 해 준다.

Arthaus 109169 [Blu-ray]

Ken Russell's View of The Planets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유진 오먼디(지휘)

켄 러셀이 '혹성'을 통해 바라본 20세기 지구의 모든 이야기

종교와 성애, 금기와 폭력에 관한 논쟁적 작품을 대담하게 풀어낸 영국의 켄 러셀(Ken Russell, 1927~2011).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에게는 영화 '말러'(1974)나 '음악 애호가들'(1970)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그는 이단아적인 면모를 심오한 예술적 깊이에 담아낸 거장으로 명성이 높다. 여기 수록된 The Planets은 그의 1983년작으로서 유진 오먼디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홀스트의 행성을 음악으로 깔아놓은 뒤 엄청나게 많은 양의 20세기 지구의 다양한 영상 재료들을 편집한 콜라쥬 형식의 다큐멘터리 필름이다. 화성은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금성에서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수성에서는 감동적인, 목성은 원기 넘치고 희망적인, 토성에서는 영속적인 것 등등의 영상물이 음악과 함께 펼쳐진다.

Arthaus 109213 [Blu-ray]

A Tribute to Hans Knappertsbusch

비르기트 닐손(이졸데), 클레어 왓슨(지글린데), 프리츠 울(지그문트), 요제프 그라인들(훈딩)/ 빈 필하모니커/ 한스 크나퍼츠부쉬(지휘)

독일 음악의 신화 크나퍼츠부쉬를 영상으로 만나다

1962년과 196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5월 음악축제에서 한스 크나퍼츠부쉬가 빈 필하모니커와 가진 콘서트 실황이 비로소 Blu-Ray로 발매되었다. 크나퍼츠부쉬의 웅대하고도 신비로운 음악 만들기를 영상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영상물로서 이 테아터 안데르 빈 실황들은 역사적으로나 음악적으로 대단히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1962년 영상물은 빌헬름 박하우스와 함께 연주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과 레오노레 서곡 3번, 비르기르 닐손이 등장한 트리스탄과 이졸데 '사랑의 죽음'과 전주곡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1963년 영상물에는 왓슨, 울, 그라인들과 같은 전설적인 바그너 가수들과 함께 바그너 발퀴레 1막 전곡이 수록되어 있다. 음악 애호가들이라면 반드시 소장해야 할 필살의 아이템으로서 강력히 추천한다.

Arthaus 109211 [Blu-ray]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이야기

발레리 게르기예프, 피에르 불레즈, 알렉산더 토라제 외

게르기예프가 풀어놓는 '봄의 제전'의 신비

이 다큐멘터리 영상물은 세계에서 가장 카리스마 넘치고 다이내믹하며 바쁜 지휘자인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리허설하고 연주하며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스토리보드를 중심으로 제작된 것이다. 피터 룸프 감독이 제작한 이 영상물이 감동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지휘자가 이 봄의 제전을 얼마나 마음 속 깊이 사랑하고 작품에 담긴 독창적인 요소들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이다. 작곡가가 직접 지휘하는 모습을 비롯한 다양한 그의 흔적들, 20세기 초반 러시아의 격변을 담은 흑백 영상들을 비롯하여 이 작품을 초연한 발레 뤼스의 디아길레프와 니진스키 자료들이 흥미롭게 편집되어 있다. 봄의 제전에 대한 모든 지식과 이해를 이 한 장의 영상물로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Arthaus 109215 [Blu-ray]

Blood On The Fields

윈턴 마샬리스

현대 트럼펫의 살아있는 전설, 윈턴 마샬리스의 삶과 음악

전설적인 트럼펫 연주자인 모리스 앙드레는 윈턴 마샬리스에 대해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트럼페터임이 분명하다"라고 극찬을 한 바 있다. 수잔 쇼 감독이 마샬리스가 범 Blood on the Fields를 녹음하는 과정에 그의 삶과 음악을 녹여내어 1996년에 완성한 다큐멘터리인 이 영상물은 그에 대한 훌륭한 음악적 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뉴 올리언스에서 저명한 음악가 가족 사이에서 태어나는 그는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며 아트 블랙키와 함께 하며 명성을 떨친다. 올드타임 재즈부터 포스트밥에 이르는 다양한 테크닉과 비르투오시티, 스타일을 완벽하게 구사한 불세출의 재즈 아티스트임에도 불구하고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도 자신만의 캐리어를 쌓아가기도 한 마샬리스의 천재성을 이 영상물을 통해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rthaus 109217 [Blu-ray]

Lullaby of Birdland – The Shearing Touch

조지 셰어링

장님 재즈 뮤지션 조지 셰어링의 모든 것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국 출생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조지 셰어링(George Shearing, 1919~2011).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음에도 세련된 연주와 독특한 연주 스타일로 인기를 얻으며 꾸준히 활동했다. 영국에서 인기를 얻은 후 1949년 뉴욕으로 건너가 5중주단을 조직해 29년 동안 연주를 하며 명성을 얻은 전설적인 재즈 음악가로서 쿨 재즈와 모던 재즈의 교두보이자 이지 리스닝의 선구자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1952년작 히트곡인 "Lullaby of Birdland"라는 제목으로 질 마르샬 감독이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 필름은 흑백시대와 컬러시대의 영상물을 거슬러올라가며 그의 음악과 일생을 짚어가는 스토리보드를 갖고 있다.

Arthaus 109223 [DVD]
Arthaus 109224 [Blu-ray]

베토벤: 피델리오

요나스 카우프만(플로레스탄), 카밀리야 나이룬드(레오노레), 알프레드 무프(돈 피자로), 엘리자베스 라에 마그누손(마르첼리나) 외/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지휘)

젊은 혈기와 노장의 열정이 일구어낸 명연주

2016년 세상을 뜬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가 2004년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에서 가진 베토벤 '피델리오' 실황 영상물이 낱장 블루레이로 발매되었다. TDK 레이블부터 꾸준하게 발매되어온 롱-셀러 영상물로서 아르농쿠르의 정격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한 오케스트라 사운드와 전개는 언제 들어도 무한한 존경심을 자아낸다. 한편 위르겐 플림 감독의 절제되어 있는 동시에 상징적인 무대 또한 작품에 역사적인 깊이감과 숭고한 자유의지를 부각시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성악진 또한 돋보인다. 뮌션 출신의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절창과 집중도 높은 연기는 지금까지 발매된 영상물 플로레스탄 가운데 무릇 으뜸이고, 핀란드 출신의 카미리야 나이룬드 또한 탁월한 성량과 날렵한 음색으로 무대를 압도한다. 화질이 향상된 만큼 감동도 배가가 된 그러한 명작 프로덕션이다.

Arthaus 109237 [5 DVD]
Arthaus 109222 [3 Blu-ray]

핫 이슈 !!
20세기 음악역사의 길라잡이.....

사이먼 래틀이 안내하는 〈20세기 음악의 역사〉

****해외 본사 자막제작 중**
1부 구간(화산 속의 춤/ Disc 1)에서 한글자막 겹침 현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세기 음악의 천재지변을 예감했던 바그너부터 생존하는 소피아 구아둘리나까지

음악의 20세기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들어보고 싶다는 호기심은 누구나 가져본다. 하지만 '현대음악'은 다가서기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느껴지고는 한다. 이렇게 쉽게 용기 내지 못했던 이들에게 멋진 가이드 한 사람을 소개한다. 바로 지휘자 사이먼 래틀이다. 본 영상물에서 "그 누구도, 심지어 지휘자조차도 감히 20세기 음악사 전체를 다룰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래틀은 자신의 현대음악 강의와 연주를 "좋은 레스토랑에서 다양한 요리를 조금씩 맛보는 것에 더 가깝다"라며, 이 영상물이 "여러분의 입맛을 돋워 주길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아트하우스에서 출시한 이번 영상물은 독일 모나르다 아츠(Monarda Arts)가 1996년에 제작한 것으로, 1980년부터 1998년까지 수석지휘자 및 음악감독으로 재직했던 래틀과 버밍엄 심포니가 연주를 맡은 영상이 블루레이(3장)와 DVD(5장)로 출시되었다.

20세기 음악사를 대표하는 수록곡들

19세기와 20세기의 풍경을 담은 흑백 다큐멘터리 영상이 래틀과 버밍엄 심포니의 연주자 장면과 교차하는가 하면, 래틀은 음악사에 담긴 사회 · 정치 · 경제적 배경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해설하기도 한다. 래틀의 해설에는 한글,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자막을 갖추었다.

Arthaus 109220 [DVD]
Arthaus 109221 [Blu-ray]

존 그레이: 거지 오페라

로저 달트레이(맥케스), 스트라드 존스(피첨), 파트리샤 라웃리지(비첨 부인), 카롤 홀(폴리 피첨) 외/ 잉글리쉬 바로크 솔리스츠/ 존 엘리엇 가드너(지휘)

풍자 오페라의 대명사, 존 그레이의 거지 오페라

존 그레이(John Gay, 1685-1732)는 유능하고 뛰어난 시인이나 희곡작가로서 특히 풍자극에 능했다. 그의 대표작인 '거지 오페라'는 그의 친구이자 희곡작가인 조나단 스위프트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쓴 것으로서 일종의 발라드 오페라로 구분된다. 짧은 노래, 친숙한 곡에 붙인 새로운 가사와 코미디가 결합한 이 장르가 런던의 사교계에 등장하자 많은 청중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상류 계급의 행동, 정치가와 이탈리아 오페라에 대한 풍자를 보며 배꼽을 잡았다. 특히 헨델의 주요 소프라노들 사이에 벌어지는 질투를 조롱하는 폴리 피첨과 루시 로키트의 신랄한 이중창 대목이 걸작이다. 특히 1928년에 브레히트와 바일이 이 오페라를 각색하여'서푼짜리 오페라'를 만들었을 정도로 시대를 뛰어넘은 풍자의 힘이 강력하다. 1983년에 제작된 영화오페라로서 존 엘리엇 가드너의 정확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지휘 또한 인상적이다.

Berliner Philharmoniker

www.berliner-philharmoniker.de

Berliner Philharmoniker BPHR160091
[5CDs + 1Blu-ray Audio + 2 Blu-ray]

사이먼 래틀과 베를린 필하모니커의 베토벤 교향곡 전집

Annette Dasch(soprano)/ Eva Vogel(mezzo-soprano)/ Christian Elsner(tenor)/ Dimitry Ivashchenko(bass)/ Rundfunkchor Berlin/ Simon Halsey/ Chorus Master

2016년 4월 CD와 Blu-ray로 발매되는 사이먼 래틀과 베를린 필하모니커의 베토벤 교향곡 전곡 레코딩

베를린 필하모니커가 상임 지휘자와 함께 작업한 루드비히 반 베토벤 교향곡 전집은 역사적으로 시대를 규정짓는 음악적 이정표 역할을 해 왔다. 빈 필하모니커와 전집을 완성한 이후 베를린 필과는 처음으로 상임 지휘자인 사이먼 래틀이 베토벤 교향곡 전집을 완성했다. 과연 이번 베토벤 교향곡 사이클은 어떤 시대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적어도 베를린 필하모니커와 래틀이 남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기념비로 남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 상임 지휘자인 사이먼 래틀의 지휘봉 아래 베를린 필하모니커는 2015년 상반기 베를린에 이어 파리 필하모니아 홀, 빈 무직페라인, 뉴욕 카네기 홀, 도쿄 산토리 홀을 돌며 베토벤 교향곡 전곡 연주회를 가졌다. 혁명적인 에너지와 남다른 비르투오시티를 드러낸 이들의 연주에 감동을 한 세계의 청중은 매순간 기립박수로 이를 환호했을 정도로 반응은 뜨거웠다. 이 가운데 베를린에서의 사이클이 CD와 HD-Video 및 high-resolution audio를 담은 Blu-ray로 출시되었다. 래틀이 악보로 사용한 베렌라이터 출판사의 편집자인 조나단 델 마르가 쓴 해설과 더불어 아름다다운 하드커버와 현대적인 디자인을 통해 발매된 이 전집에는 사이먼 래틀의 많은 보너스 필름들과 레코딩 제작 장면 다큐멘터리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제품 구성]

- 5 CD + 1 Blu-ray Audio + 2 Blu-ray

Symphony No. 1 in C major, Op. 21
Symphony No. 2 in D major, Op. 36
Symphony No. 3 in E flat major, Op. 55 "Eroica"
Symphony No. 4 in B flat major, Op. 60
Symphony No. 5 in C minor, Op. 67
Symphony No. 6 in F major, Op. 68 "Pastoral"
Symphony No. 7 in A major, Op. 92
Symphony No. 8 in F major, Op. 93
Symphony No. 9 in D minor, Op. 125 with Final Chorus "Ode to Joy"

- Recorded at the Berlin Philharmonie in October 2015
- Concert videos
  HD recordings of the entire symphony cycle

[Bonus]
- Documentary: "Living with Beethoven"
  The nine symphonies with the Berliner Philharmoniker and Sir Simon Rattle
- Introduction: Sir Simon Rattle talks about Beethoven's Symphonies

C Major Entertainment

www.cmajor-entertainment.com

C Major 734508 [2DVDs]
C Major 734604 [Blu-ray]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Vol.3

루돌프 부흐빈더(피아노)

부흐빈더의 세 번째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녹음

타고난 비르투오소였던 베토벤의 음악세계에 가장 정확하고 진실되게 다가간 피아니스트로 역시 타고난 비르투오소이자 오스트리아 피아니즘의 적자인 루돌프 부흐빈더를 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부흐빈더는 냉철한 테크닉과 가공할 만한 터치, 완벽하게 계산된 순간, 엄격하게 통제되는 음향, 현존하는 모든 악보 에디션에 대한 철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베토벤이 원래 의도했던 표현과 리듬, 대비의 묘를 적확하게 구현한 현존 최고의 베토베니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최초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실황으로서 2, 9, 15, 11, 20, 8, 25, 21, 27, 23, 30, 31, 32번이 수록되어 있다.

**보너스로 부흐빈더의 작품 인터뷰 수록. [한글자막]

C Major 735108 [2DVDs]
C Major 735204 [Blu-ray]

구노: 파우스트

샤를르 카스트로노포(파우스트), 일다 아브드라자코프(메피스토), 이리나 룽구(마르게리트)/ 테아트로 레지오 토리노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지아난드레아 노세다(지휘)

상상 그 이상의 무대와 최고의 배역들이 펼치는 경이로운 음악의 향연

토리노 극장 상임 지휘자이자 최근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으로 추대된 지아난드레아 노세다의 2015년 6월 테아트로 레지오 토리노에서의 실황 영상물. 현재 가장 주가를 높이고 있는 이 이탈리아 지휘자의 음악적 저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오페라 전막으로서, 연출가 스테파노 포다의 컬러풀하고 환상적이며 상징적인 무대 또한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압도되게끔 한다. 최근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는 보기 드문 스펙타클함과 경이로운 비쥬얼, 음악적인 압도감을 담은 최고의 영상물로서,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일다 아브드라자코프의 압도적인 저음과 세기의 소프라노로 발돋음 하고 있는 이리나 룽구의 매혹적인 가창이 눈길을 끈다.

C Major 735508 [2DVDs]
C Major 735604 [Blu-ray]

오펜바흐: 호프만의 이야기

다니엘 요한손(호프만), 케르스틴 아베모(올랭피아/줄리에타), 만디 프리드리히(안토니아/줄리에타), 라첼 프렌켈(뮤즈/니콜라우스) 외/ 빈 심포니커, 프라하 필하모닉 합창단/ 요하네스 데부스(지휘)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2015년 브레겐츠 실황

2015년 브레겐츠 실황의 오펜바흐 '호프만의 이야기'가 전격 블루레이로 발매되었다. 브레겐츠 하면 야외 호반무대만 생각할 수 있는데, 육지에 건설된 실내 페스트슈필하우스에서의 오페라 또한 수준과 완성도가 대단히 높다. 특히 유럽 최고의 연출가로 명성이 높은 슈테판 헤르하임 감독의 무대는 지금까지 발매된 '호프만의 이야기' 영상물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칭송할 만큼 충격적이다. 특히 여러 캐릭터들이 가수와 연기자로 분리되며 자아의 이중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합창단은 모두 호프만 분장을 하고 나와 주인공의 분신인 듯 극을 이끌어간다. 더불어 오펜바흐 분장 캐릭터가 직접 배역으로 등장하는 한편 두 가수가 한 캐릭터를 맡는 등 캐릭터의 정체성과 관계를 다각도로 설정하여 전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해낸다. 성악적으로나 무대적으로 완벽 그 이상의 완성도를 자랑하며 음악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결정반이다!

[보조자료]

2015년 브레겐츠 실황의 오펜바흐 '호프만의 이야기'가 전격 블루레이로 발매되었다. 브레겐츠 하면 야외 호반무대만 생각할 수 있는데, 육지에 건설된 실내 페스트슈필하우스에서의 오페라 또한 수준과 완성도가 대단히 높다. 2013년작 시마노프스키의 '로제르 왕'을 필두로 이번이 브레겐츠 페스트슈필하우스에서의 두 번째 영상물인데, 어떻게 보면 야외무대보다 더 흥미로운 레퍼토리와 고급스러운 넌-마이크 사운드를 자랑한다. 앞으로 브레겐츠의 페스트슈필하우스에서의 영상물에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질 것 같다.

이 '호프만의 이야기'의 연출가는 현재 독일의 거장급 연출가이자 유럽 최고의 거장으로 명성이 높은 슈테판 헤르하임 감독이다. 그의 무대는 지금까지 발매된 '호프만의 이야기' 영상물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칭송할 만큼 충격적이다. 헤르하임 감독의 무대는 항상 기발한 상상력과 정곡을 찌르는 유머, 그리고 현실과 상상에 구분을 짓지 않는 독특한 시공간적 오버랩 테크닉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낯설 뿐만 아니라 연출가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한다. 노르웨이 출신으로서 독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 연출가의 무대적 깊이는 지나치게 문학적이거나 영화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특유의 감각적 미장센들과 흥미진진한 오페라적인 전개는 휘발성이 높은 만큼 중독성도 높다.

지난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 '시칠리섬의 저녁기도', '라 보엠', '루살카' 등등을 보노라면 그가 얼마나 오페라의 이야기 그 자체에 정통하고 이를 얼마나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려는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이 브레겐츠 페스트슈필하우스에서의 '호프만의 이야기'는 헤르하임의 상상력이 극대화된 무대로 손꼽기에 모자람이 없는 무대다. 특히 여러 캐릭터들이 가수와 연기자로 분리되며 자아의 이중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합창단은 모두 호프만 분장을 하고 나와 주인공의 분신인 듯 극을 이끌어가는 것이 특징으로서, 이 복잡기괴한 스토리의 오페라를 다자적인 시점으로 바라보며 여기에 담긴 퇴폐미와 순수한 열정을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그리고 너무나 설득력 있게 표현해냈다. 검은 화면을 뒤로 한 채 등장하는 캐릭터 하나하나의 의상과 분장은 몹시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시종일관 오페레타적인 분위기를 잃지 않는 감독의 화려한 취향 또한 대단히 자극적이다. 독일 연극 연출 특유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조명과 명화들로부터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도록 새롭게 편집한 스크린 영상 사용, 독특한 의상에서 기인하는 퇴폐성과 도착증세, 강박관념, 그리고 이러한 미장센들이 모두 모여 만들어내는 전혀 새로운 상상력과 상징성 또한 걸출하다. '호프만의 이야기' 프로덕션 영상물 역사상 최고로 혁신적이며 재기발랄한 동시에 의미심장한 무대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테너 다니엘 요한손이라는 우리 시대의 호프만을 만날 수 있다는 점 또한 각별하며 빈 심포니커의 비할 바 없는 디테일과 사운드 또한 최상급이다.

C Major 735708 [DVD]
C Major 735804 [Blu-ray]

밍쿠스: 돈 키호테

나탈리아 오시포바, 레오니드 사라파노프 외/
라 스칼라 오케스트라와 발레단/ 알렉산더 티토프(지휘)

최고의 무용수들이 만들어낸 돈 키호테의 결정체

볼쇼이의 최신 프로덕션이 아직 블루레이로 발매되지 않는 현재, 세계 최고의 '돈 키호테'로 손꼽을 수 있는 영상물이 발매되었다. 루돌프 누레예프가 쁘티파의 안무를 새롭게 다듬고 밍쿠스의 음악을 존 란치버리가 새롭게 오케스트레이션 및 개작을 한 라 스칼라 오페라 하우스의 '돈 키호테'. 여기에 현존 최고의 발레리나이자 키트리로 손꼽히는, 볼쇼이 프린서펄 출신의 나탈리아 오시포바와 현존 최고의 발레리노이자 바질리오로 명성이 높은, 마린스키 프린서펄의 리오니드 사라파노프가 등장한다. 볼쇼이나 마린스키 버전에 비하여 라 스칼라는 무대가 작은 데다가 누레예프 버전은 보다 스토리 텔링에 충실한 연기와 설명이 많이 들어가 조금 스케일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원작의 내용과 무용소들의 감정표현에 더 치중한 20세기 최고의 '돈 키호테' 재안무라고 말할 수 있다. HD 화질로 감상하는 아름다운 미장센과 아름다운 발레의 향연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는 회심의 영상물!

C Major 736108 [DVD]
C Major 736204 [Blu-ray]

푸치니: 라 보엠

다니엘라 데시(미미), 파비오 아르밀랴토(로돌포), 아리다 베르티(무제타), 알레산드로 루옹고(마르첼로) 외/ 푸치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바레리오 갈리(지휘)

데시와 아르밀랴토 부부의 환상적인 라 보엠

2014년 이탈리아의 호반도시 토레 델 라고에서 열리는 푸치니 페스티벌 실황의 푸치니 '라 보엠'. 에토레 스콜라 연출로서 이탈리아 고유의 감수성이 잘 드러난 사실주의 경향의 야외 무대로서, 이탈리아 성악계의 백전노장 다니엘라 데시와 그의 남편 파비오 아르밀랴토가 주역으로 등장한다. 서울에서 이 부부가 '토스카'를 노래한지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넘치는 연기력과 노련함을 더한 가창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있노라면 많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내 이름은 미미'가 시작할 때 이 드라마의 비극적인 결말을 예견하는 듯 호수 뒤편으로부터 천둥소리가 들려오며 자연적인 효과음이 배가되는 흔치 않은 장면 또한 포착되어 있다. 푸치니 페스티벌 프로덕션 영상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록 가운데 하나로서 필수소장을 요한다.

[보조자료]

60회를 맞이한 푸치니 페스티벌의 대표작 '라 보엠'

– 이탈리아 토스카나(Toscana) 주의 작은 마을 토레 델 라고에서 열리는 호반 야외 오페라 페스티벌인 푸치니 페스티벌. 이탈리아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로 손꼽히는 푸치니는 생전에 30여 년간 토레 델 라고라는 작은 마을에 머물렀다. 1924년 푸치니가 세상을 떠난 뒤인 1930년, 그의 친구들과 제자들이 푸치니를 기리기 위해 처음으로 오페라 라 보엠(La Bohème)을 그가 살던 집 근처에서 연주한 바 있다. 이듬해인 1931년에 한 번 더 공연이 이루어졌으나 계속되지 못하다가 푸치니 서거 25주년인 1949년이 되어서야 다시 공연이 열릴 수 있었다. 이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토스카나 주정부는 푸치니를 기리는 페스티벌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한 뒤 1952년부터 토레 델 라고 푸치니 페스티벌이 매년 7월에 시작해 8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열리게 됐다.

– 2014년 제60회를 맞이한 토레 델 라고 푸치니 페스티벌은 그 이름처럼 푸치니가 생전에 작곡한 오페라 작품들이 무대에 올랐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작품이 바로 라 보엠이었다. 에토레 스콜라 연출로서 이탈리아 고유의 감수성과 드라마 그 자체의 스토리에 고스란히 몰입할 수 있는 사실주의 경향의 무대. 전 막 동안 파리의 삶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한 아름다운 무대가 펼쳐지는데, 다만 2막 맨 처음에 무대 왼편 구석에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를 연상시키는 장식적인 부분이 잠깐 등장하여 이채로움을 더한다. 회전 무대 하나를 중심으로 1막부터 4막까지의 무대를 연결해나가는 이 야외무대에서 밤하늘의 천연의 어둠을 배경으로 인공적인 하얀 눈을 떨어뜨리는 3막이 가장 아름답다.

다니엘라 데시와 파비오 아르밀랴토의 완벽한 연기와 호흡

– 성악진으로는 이탈리아 성악계의 백전노장인 소프라노 다니엘라 데시와 그의 남편 테너 파비오 아르밀랴토가 주역으로 등장한다. 서울에서 이 부부가 '토스카'를 노래한지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넘치는 연기력과 노련함을 더한 가창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있노라면 많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내 이름은 미미'가 시작할 때 이 드라마의 비극적인 결말을 예견하는 듯 호수 뒤편으로부터 천둥소리가 들려오며 자연적인 효과음이 배가되는 흔치 않은 장면 또한 포착되어 있다. 무제타의 아리다 베르티와 마르첼로의 알레산드로 루옹고 같은 조연들의 가열찬 연기와 빼어난 성악적 활약 또한 금상첨화다.

EuroArts

www.euroarts.com

EuroArts 2072828 [5 DVDs]

체코의 정통과 진수를 담은 드보르자크 교향곡 전집

드보르자크: 교향곡 1~9번 전집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르지 벨로흘라베크(지휘)

드보르자크의 진수를 담은 벨로흘라베크와 그의 명기 체코 필의 루놀피눔 실황

2014년 프라하 루돌피눔에서 선보인 이르지 벨로흘라베크와 체코 필하모닉의 드보르자크 교향곡 전곡 실황. 벨로흘라베크는 세련되고 주관적인 해석보다는 드보르자크의 당대성을 잘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어감으로 체코음악의 '오래된 미래'인 드보르자크의 매력을 담아냈다. 벨로흘라베크가 체코의 배우이자 가수이며 작곡가인 에벤(Marek Eben)의 질문을 받아 각 악장의 테마와 주선율을 해설하는 장면이 매 악장 전마다 삽입된 것과 마지막에 수록된 8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야 말로 이 전집물의 또 다른 매력이다.

[보조자료]

– 2014년 프라하 루돌피눔에서 선보인 이르지 벨로흘라베크와 체코 필하모닉의 드보르자크 교향곡 전곡 실황. 1896년 1월 4일 루돌피눔에 오른 체코 필하모닉 창단 연주회의 지휘봉을 잡은 이는 드보르자크였다. 그 뒤로 바츨라프 탈리흐, 카렐 안체를, 바츨라프 노이만 등 체코가 내세우는 지휘자들이 이 악단을 거쳐 갔고, 2012년부터는 벨로흘라베크가 상임지휘자로 재직 중이다. 루돌피눔에 상주하는 오케스트라인 만큼 영상과 오디오로 구현되는 소리의 흐름과 색채는 자연스럽고, 카메라워크는 실황의 생생한 장면을 구석구석 담아낸다. 벨로흘라베크는 세련되고 주관적인 해석보다는 드보르자크의 당대성을 잘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어감으로 체코음악의 '오래된 미래'인 드보르자크의 매력을 보여준다.

– 벨로흘라베크가 체코의 배우이자 가수이며 작곡가인 마레크 에벤(Marek Eben)의 질문을 받아 각 악장의 테마와 주선율을 해설하는 장면이 각 악장 전마다 삽입되었다. 벨로흘라베크는 총보를 피아노로 연주하며 곧 들어볼 악장의 테마와 주선율, 특징을 심도 있게 해설한다. 마지막에 수록된 8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는 벨로흘라베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드보르자크의 유품과 음악적 흔적을 더듬으며 느낀 점과 연습 현장을 담았다. 자막은 영어와 독일어로 되었다.

EuroArts 2061508 [DVD]

베를린 문화 속에 존재하는 탱고의 숨결을 담은 다큐멘터리
코둘라 힐데브란트의 탱고 다큐멘터리

탱고 열정: 베를린에서의 탱고

코둘라 힐데브란트(감독 · 연출)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아닌 베를린에서 탱고의 본질을 들여다본다

힐데브란트(Kordula Hildebrandt) 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탱고 열정: 베를린에서의 탱고〉는 독일에서 탱고를 추고, 연주하고,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탱고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느낌을 담은 영상물이다. 출연진들의 꼬장꼬장한 답변과 꼿꼿한 자세, 인터뷰 사이마다 들어가 있는 춤의 장면 등을 통하여 본국을 떠나 이방에 존재하는 탱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과 같은 음악영화를 좋아하는 이라면, 〈탱고 열정: 베를린에서의 탱고〉에서도 그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보조자료]

– 이제는 세계인들이 즐기는 탱고의 뿌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 탱고를 추고, 연주하고,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예술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 힐데브란트(Kordula Hildebrandt) 감독은 그들의 이야기와 생각을 카메라에 담아낸다.

– 탱고는 20세기에 유럽에 받아들여진 이후 오히려 아르헨티나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가 아닌 이방의 베를린에서 살아가는 탱고 예술가들의 인터뷰는 탱고의 뿌리와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한다. 칠레에서 태어난 사진가이자 작가인 란카(jorge aravena llanca)는 베를린에 탱고는 물론 이와 관련된 책과 영화도 있지만, 베를린의 탱고는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숙한 문화가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요소라며 '독일탱고'는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 다른 이는 "탱고음악 가사의 의미를 모르고 탱고를 추는 것은 물에 젖지 않고 서핑을 하는 것과 같다"고도 한다. 그들의 꼬장꼬장한 답변과 꼿꼿한 자세, 인터뷰 사이마다 들어가 있는 춤의 장면 등을 통하여 본국을 떠난 탱고의 역사와 숨결을 느낄 수 있다.

– 빔 벤더스 감독의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처럼 음악을 소재로 한 로드무비와 인터뷰가 결합된 영화를 편애하는 마니아라면, 〈탱고 열정〉에서도 그 재미와 흥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한글 자막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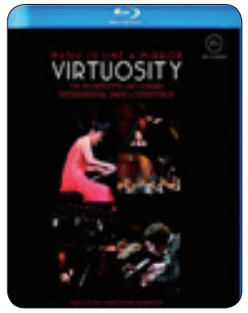
EuroArts 2072244 [Blu-ray]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LA 필하모닉

LA 필하모닉/ 주빈 메타(지휘)

젊은 메타의 불타오르는 예술혼이 담긴 영상물

1962년부터 1978년까지, 뉴욕 필하모닉으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까지 LA 필하모닉 상임 지휘자로서 악단을 이끌며 전설적인 업적을 남긴 주빈 메타의 영화로운 시절을 회고할 수 있는 역사적인 영상물이 블루레이로 업스케일링되어 발매되었다. 1977년 1월 10일부터 13일 사이 LA의 도로시 캔들러 바필리온에 위치한 뮤직 센터에서의 실황을 편집한 이 영상물에는 모차르트의 바순 협주곡 B플랫 장조(오보에: 데이빗 브라이덴탈), 버르토크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과 '카니발' 서곡, 슬라브 무곡 G단조 등이 수록되어 있다. 올해 80세를 맞이한 메타는 20대부터 한결 같이 최고의 음악을 만드는 진정한 거장이자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슈퍼스타로 일컬어지는데, 오디오 프로듀셔인 맥스 윌콕스의 레코딩 퀄리티 또한 대단히 높아 40년전에 제작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다.



EuroArts 2061284 [Blu-ray]

비르투오시티 – Music Is Like A Mirror

바딤 코로덴코, 베아트리체 라나, 싱 첸, 페이-페이 동, 니키타 므도얀츠, 토모키 사카타 외/ 레너 슬래트킨(지휘)

2013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의 시작과 끝

최고의 운영 시스템과 최고의 심사위원, 최고의 참가자들로 세계적인 명성이 높은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2013년 대회 장면들을 담은 다큐멘터리 필름. 이 영상물은 대회에 참여한 세계의 많은 젊은 연주자들의 탁월한 개성과 그들이 보여주는 화려하고 집중력 높으면서도 부드러우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음악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참가자들의 가족들과 반 클라이번에 대한 추억, 예선과 결선을 거치는 동안 펼쳐지는 참가자들의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레너드 슬래트킨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양한 협주 장면들을 거쳐 마지막 시상식까지 카메라가 이어진다. 보너스 트랙으로 1,2,3등 수상자인 코로덴코(리스트 초절기교연습곡), 라나(라벨 스카르보), 첸(스크리아빈 소나타 5번)의 솔로 연주들이 수록되어 있다.

OpusArte

www.opusarte.com

OpusArte OA1197 [DVD]
OpusArte OABD7188 [Blu-ray]

비제: 카르멘

크리스틴 라이스(카르멘), 브라이언 히멜(돈 호세), 마이자 코바레프스카(미카엘라), 아리스 아르기리스(에스카미요) 외/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콘스탄티노스 카리디스(지휘)

영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극사실주의적 카르멘

줄리안 나피어 감독이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카르멘 프로덕션을 영화 필름으로 촬영한 영상물로서 원래는 3D로 제작한 것인데 이제 DVD와 2D Blu-Ray로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감독은 프란체스카 잠벨로로서 극사실주의적이인 무대 탓에 이미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간판 프로덕션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되었다. 특히 DECCA에서 발매된 2006년 안토나치와 카우프만의 무대와 동일한 것으로서 이번 2010년 영상물은 연기나 무대, 영상에 있어서 훨씬 영화적이다. 열정의 카르멘으로는 농염한 미모의 크리스틴 라이스, 돈 호세로는 미남에 미성의 브라이언 히멜, 청순함의 대명사 미카엘라로는 마이자 코바레프스카 등등이 출연하여 영화보다 더 영화적인 오페라를 만들어나간다.

[보조자료]

영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극사실주의적 카르멘

– 2010년 6월 런던 코벤트가든 오페라 하우스에서 촬영한 비제의 카르멘. 원래 이 무대는 프란체스카 잠벨로 감독이 제작, 연출한 무대로서 극사실주의적인 동시에 고도의 연출적 테크닉이 가미된 걸작 프로덕션으로 현재까지 최고의 카르멘 무대로 그 명성이 높다. 이 무대는 초연 당시의 실황으로서 DECCA에서 발매된 2006년 안토나치와 카우프만 캐스팅의 무대와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이 무대를 Opus Arte에서 새롭게 촬영, 발매했는데, 그것은 이 역사적인 무대를 최신 영화기법인 가상입체영상 3D로 제작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오페라 역사상 최초의 3D 영상물이 Blu-Ray로 발매되었고, 이어 2D 버전으로 Blu-Ray와 DVD가 발매되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오페라인 카르멘이 3D로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오페라 무대가 단순히 오페라 하우스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관과 집안에서도 즐길 수 있는 필수적인 엔터테인먼트적이고도 보다 대중적인 문화로서 고전예술이 자리잡게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줄리안 나피어 감독이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카르멘 프로덕션을 영화한 이 영상물은 단순히 기존의 오페라 무대를 영상으로 옮겼다는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실제 일반 티켓 오픈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앵글과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가 동원되어 무대에 원근감과 회전 방향성, 깊이와 다양한 각도, 보다 근접한 인물샷 같은 영화와 거의 비슷한 촬영기법이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이전 DECCA 영상물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 보는 듯한 생경한 느낌과 보다 다채로운 이해를 수반한다. 물론 색감과 해상도 또한 이전 버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된 영상 퀄리티를 담고 있다. 카르멘으로는 농염한 목소리와 매혹적인 외모를 갖춘 크리스틴 라이스, 돈 호세로는 미남에 훌륭한 리릭을 구사하는 브라이언 히멜, 미카엘라로는 연기와 목소리, 외모 모두 청순함으로 중무장한 마이자 코바레프스카, 에스카미요로는 관록의 아리스 아르기리스 등등이 출연하여 영화보다 더 영화적인 오페라를 만들어나간다.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는 명품 오페라 영상물이 탄생했다.

OpusArte OABD7193 [6 BD Set]

러시아 오페라 클래식스 (박스 세트)
LIMITED EDITION SPECIAL PRICE

무소르그스키의 [보리스 고두노프, Boris Godunov]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조국과 차르에 대한 기념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의 어머니 땅인 러시아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다. 차이코프스키는 푸시킨의 소설을 바탕으로 오페라들을 작곡했는데 그 중 하나는 젊은 청년 오네긴과 그가 버렸다가 다시 매달리는 타티아나 사이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인 [예프게니 오네긴, Eugene Onegin], 다른 하나는 [스페이드의 여왕, Pique Dame]이다. 스페이드 여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사인 게르만이 자신에게 도박의 행운을 가져다 줄 세 장의 카드에 얽힌 비밀에 집착하다가 카드의 비밀을 알고 있는 백작부인에게 접근하려고 그녀의 후견인인 리자에게 구애를 한다. 게르만이 백작부인을 놀라게 해 그녀가 죽은 후 그녀의 망령이 나타나 카드의 비밀을 밝힌다. 3, 7, 에이스가 연속으로 나오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침내 게르만이 승리를 거머쥐려는 순간 에이스라고 생각했던 카드를 뒤집으니 스페이드 퀸이었다. 그림 속 퀸은 백작 부인의 얼굴로 변해 게르만에게 윙크를 하고 게르만은 미쳐 버린다. 한편 러시아 오케스트레이션의 거장인 림스키-코르사코프가 러시아의 민속 이야기를 바그너 스타일로 담아낸 [보이지 않는 도시 키테즈의 전설, The Legend of the Invisible City of Kitezh], 마리스 얀손스의 초인적인 지휘와 쇼스타코비치의 강력한 힘과 현대적인 신랄함이 분출하는 [므첸스크의 맥베스 부인, Lady Macbeth of Mtsensk]가 이 박스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해외평]

(The Opera Critic – BORIS GODUNOV) (BD OABD7087)
"오케스트라 음향과 성악적인 완성도 모두 뛰어나다."

(The New York Times – EUGENE ONEGIN) (BD OABD7100)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와 음악감독 얀손스의 호흡은 오케스트라 음악의 이상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얀손스의 음악성이 모든 프레이즈마다 인장처럼 찍혀나오는 이 프로덕션에서 그는 성악가와 오케스트라 사이의 이상적인 일체감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Musicweb International – PIQUE DAME) (BD OABD7085)
"리체우 실황은 전통적이지만 스토리 자체가 워낙 감탄스러울 정도로 훌륭하고 노래와 연주 모두 훌륭하여 신선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이 DVD를 보면서 이 작품이 차이코프스키의 가장 드라마틱하고도 음악적인 보물(오네긴 팬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 영상물은 작품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가장 좋은 영상물일 뿐만 아니라 차이코프스키 애호가들에게 이 작품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각인시키기에 최선의 방법임이 분명하다.

(Trouw – CITY OF KITEZH) (BD OABD7109) [한글자막]
"체르니아코프의 무대는 완벽하게 구현되었고 이 기나긴 오페라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었다. 지휘자 마르크 알브레히트의 공이 특히 크며 네덜란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뛰어난 네덜란드 국립 오페라 합창단 덕분에 음악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이 프로덕션의 스타는 소프라노 스베틀라나 이그나토비치로서 그녀는 페브로니야라는 캐릭터를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온전히 창조해냈다. 최고의 오페라, 최고의 연주!"

(The Penguin Guide – LADY MACBETH) (BD OABD7031)
"쇼스타코비치 해석의 대가인 마리스 얀손스는 [므첸스크의 멕베스 부인]을 몹시 흥분적인 동시에 드라마틱하게 지휘했다...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의 빛나는 사운드는 힘과 아름다움을 모두 이끌어냈다. 캐스팅 또한 강력하다. 에바-마리아 베스트브로크는 타이틀롤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타락시키다가 결국에는 비극을 맞게끔 하는 배역을 통렬하게 연기해냈고, 그녀의 연인인 세르게이역을 맡은 크리스토퍼 벤트리스 또한 최고의 성악과 연기를 보여준다."

OpusArte OA1204 [9 DVD Set]
OpusArte OABD7194 [7 BD Set]

바로크 오페라 클래식스 (박스 세트)
LIMITED EDITION SPECIAL PRICE

바로크 오페라 팬들이라면 이미 음반으로 오페라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크 오페라가 생각보다 조금 지루하게 느껴졌다면 이 바로크 오페라 클래식스 박스를 구입한다면 그러한 생각을 전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성악과 연기 모두 최고의 가수들과 최고의 무대로 꾸며진 이들 Opus Arte의 영상물들이 비할 바 없는 재미를 안겨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섯 개의 바로크 오페라들이 두 장 가격이라는 환상적인 가격 또한 구매욕을 자극할 것이다.

프란체스코 카발리의 오페라 [라 디도네, La Didone]와 [에르콜르 아만테, Ercole Amante]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초기 오페라들로서 초연 당시 유럽에서 가장 웅장하고 호화로운 무대로 명성이 높았다. 이와는 반대로 앞서 초연된 품격 있는 소극인 쥬세페 스카를라티의 [도브 에 아모레 에 제로시아, Dove È Amore È Gelosia]는 바로크 오페라의 보석과도 같은 작품이지만 초연 이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핸델의 마지막 이탈리아 오페라인 [데이다마, Deidamia] 또한 현재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은 오페라다. 드로트팅홀름의 18세기 바로크 극장의 기계장치들은 라모의 [조로아스터]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예지의 페르골레지 극장에서 [아드리아노 인 시리아, Adriano in Siria]를 공연할 때에도 그러했다. 데이터미아역으로 등장한 샐리 매튜는 "매혹적"(뉴욕 타임스)이고 안나 보니타티부스는 디도네역에 타협 없는 집중력을 불어넣으며 루카 피사로니의 헤르쿨레스는 영웅적인 동시에 낭창적이다. 더불어 바로크 오페라에 스페셜리티를 갖고 있는 콘체르토 쾰른, 레자르 플로리상, 르 탈랑 리리크 등의 오케스트라들이 이들 바로크 오페라의 걸작들에 전례 없는 뉘앙스와 색채를 불어넣는다.

[해외평]

(BBC Music Magazine – DEIDAMIA) (DVD OA1088D / BD OABD7110)
"알덴의 접근은 살짝 아이러닉하지만 작품과 대단히 잘 맞는 탓에 모든 음악적 요소들을 이해한 듯 보이고... 이보르 볼튼과 콘체르토 쾰른은 전문가다운 이해를 토대로 음악을 펼쳐나간다. 샐리 매튜는 성악적으로 빛을 발하는 동시에 데이터미아와 완전히 동화된 듯하다. 아쉴의 치마폭에 숨는 건장한 청년역을 부각시킨 올가 파시쉬니크는 실비아 트로 산타페의 울리세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라이벌이라 할 만하다."

(Gramophone – LA DIDONE) (DVD OA1080D / BD OABD7106)
"현악 솔로와 콘티누오, 2관편성의 목관으로 조직된 작은 오케스트라 덕분에 가수들의 낭독조의 테크닉들이 더욱 돋보인다. 너무나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는 안나 보니티아티부스는 아에네아스역에 특별한 위엄과 감동을 불어넣었다."

(International Record Review – ADRIANO IN SIRIA)
(DVD OA1065D / BD OABD7098)
"페르골레시 기념해에 발매된 이 영상물은 지금까지 들어본 것들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고 매력적이다."

(BBC Music Magazine – ERCOLE AMANTE) (DVD OA1020D / BD OABD7050)
"무대장치, 무대효과, 의상, 무용, 연기, 음악 등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황홀하기 그지없는 영상물이다. 플라스틱 근육을 달고 나온 연기자의 도움을 받는 루카 피사로니는 정력적이고 신뢰할 만한 헤르쿨레스지만 정작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은 카발리의 여성 캐릭터들이다."

(The Penguin Guide – ZOROASTRE) (DVD OA0973D / BD OABD7014)
"많은 오페라 프로덕션들이 현대 의상을 입고 공연되지만 아름답게 복원된 드로팅홀름 궁정 극장을 배경으로 고전의상을 입고 진행되는 이 전통적인 프로덕션 또한 대단히 신선하다... 이 프로덕션의 캐스팅은 초일급으로서 한결 같이 깨끗하고 정확한 목소리를 자랑한다. 또한 라모의 오페라에서 대단히 중요한 무용 또한 작품와 완벽하게 일체를 이룬다. 크리스토퍼 루세는 스타일리쉬한 지휘자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모든 면에 있어서 첫 손에 꼽을 만하다."

(Gramophone – DOVE E AMORE E GELOSIA) (DVD OA1104D / BD OABD7120)
[한글자막]
"... 이 프로덕션의 진정한 스타는 극장 그 자체다... 실제로 테크닉과 유머를 충분히 보여주면서 노래를 부르는 네 명의 체코 가수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 보인다... 오케스트라와 지휘는 대단히 산뜻하면서도 정갈하다."

OpusArte OA1201 [DVD]
OpusArte OABD7191 [Blu-ray]

죽은 여왕

아르톰 마크사코프, 마리아 구티에레즈, 다비트 말스티앙 외/ 오케스트레 나쇼날 두 카피톨르/ 코엔 케셀(지휘)

700년전 비극적인 사랑이야기의 21세기적 육체언어로의 부활

2011년 발레 두 카피톨르를 위해 창작된 창작 발레 죽은 여왕(La Reine morte)은 안무가 카데르 베랄비(Kader Belarbi)의 스펙타클한 작품. 앙리 드 몬테를랑(Henry de Montherlant, 1895~1972)의 희곡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이네 드 카스트로(Inês de Castro, 1325~1355)의 애절하고도 섬짓한 실제 러브 스토리를 각색한 것이다. 왕녀의 시녀인 돈나 이네스 드 카스트로와 사랑에 빠진 포르투갈의 왕자인 돈 페드로는 왕과 신하들의 모함으로 죽은 이네스를 대관식 때 그녀의 시체를 옥좌에 사람처럼 옷을 입혀놓고 충성을 맹세케 했다는 이야기.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을 바탕으로 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안무가의 새로운 통찰력과 고전적인 스타일에 의해 넘치는 생명력을 가진 화려한 발레로 재탄생했다.

OpusArte OABD7189 [5 BD Set]

브리튼 콜렉션 박스 세트
Limited Edition Special Price

라 스칼라/ 로열 오페라 하우스/ 잉글리쉬 내셔널 오페라/ 글라인드 본

탁월한 가수들과 다양한 지휘자들,
존경받는 연출가들이 다섯 개의 각기 다른 벤자민 브리튼의
오페라에 등장하는 박스 세트

피터 그라임스 (Peter Grimes) [한글자막]
난폭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피터 그라임스의 어업조합을 리차드 존스의 프로덕션에서는 무자비한 1980년대로 옮겨와 상호불신과 증오의 드라마에 힘을 실는다.

루크레티아의 능욕 (The Rape of Lucretia) [한글자막]
루크레티아의 능욕에 등장하는 사라 콘놀리는 빼어난 가수로서 가장 눈여겨 볼 만한데, 타르퀴니우스 왕자 역을 맡은 바리톤 크리스토퍼 말트만과 함께 이 난해한 작품의 중심을 잡으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빌리 버드 (Billy Budd)
인도미터블 순양전함 내에서의 밀실공포증을 다루며 주의를 끌어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서 자크 임브라이로가 문제 있는 선원으로, 존 마크 에인슬리가 비어 선장으로 등장한다. 2010년 글라인드본 오페라 페스티벌 프로덕션으로서 마이클 그란디지가 연출을 맡았다.

글로리아나 (Gloriana) [한글자막]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글로리아나는 로열 오페라 하우스 무대로서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을 기념하기 위해 브리튼이 작곡한 오페라. 엘리자베스 1세와 에식스 백작 로버트 데버루 사이의 애증의 관계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엘리자베스 역의 수잔 불록과 에식스 백작 역의 토비 스펜서 등등 최고의 가수진이 등장한다.

베니스에서의 죽음 (Death in Venice) [한글자막]
에드워드 가드너가 지휘하고 데보라 워너가 연출한 잉글리쉬 내셔널 오페라의 최고 걸작으로 일컬어지는 베니스에서의 죽음. 구스타프 폰 아센바흐 역을 맡은 존 그래험-홀은 아름답고 젊은 폴란스 소년을 향한 관심을 통해 치명적인 결말을 이끌어내는 명연기를 보여준다. 세계 최고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무대에 올랐던 이들 다섯 개의 프로덕션은 최고의 음악과 HD급 화질을 통해 벤자민 브리튼의 오페라에 대한 이상적인 경험을 제공해 준다.

BR Klassik + Faber Castel
COLLABORATION

21C 독일 바이에른을 대표하는
문화와 예술이 만나다

BR Klassik에서 발매되는 바이에른 방송 합창단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본사에서 엄선한 9 타이틀의 음반과
25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Faber Castel의 스페셜 콜라보레이션 이벤트

+ + +

예약 기간 동안 해당 음반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할인된 가격과
특별제작된 Faber Castel 연필을 드립니다.
예약기간 :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약음반목록]
900108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900114 구노: 성 세실을 위한 장엄미사/ 슈베르트: 미사 2번
900120 브리튼: 전쟁 레퀴엠
900125 하이든: 천지창조
900126 베르디: 레퀴엠
900302 21세기 종교작품집
900504 J.S. 바흐: 마니피카트/ 헨델: 딕싯 도미누스
403571900102 하이든: 하모니미사, 교향곡 88번, 신포니아 D장조
403571900500 마르탱: 복합창을 위한 미사 외

BR KLASSIK

표지사진
사이먼 래틀이 안내하는
20세기 음악의 역사
"Music of the 20th Century"

〈아울로스뉴스〉 2016년 5월호
통권 제 66호 발행 2016년 5월 20일
발행인 임용묵
출력 좋은그림
인쇄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922-0100(代)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는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언제 어디서든 보실 수 있으며,
아울로스 웹사이트(www.aulosmedia.co.kr)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지를 받고 싶으신 분은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e-mail 또는 기타 안내 가능합니다.